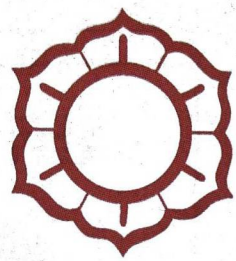


불교총지중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메
흙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실천하는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중보

2005년
4월 1일
금요일
제66호

이 달의 종조법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목표가 있어 움직인다. 이 움직이는 것이 곧 생활이다. 이 생활은 곧 인과의 순환이다. 이 순환이 나쁜 것을 악순환이라고 한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선만이 가능하다.

발행인 : 우승 편집인 : 김용주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규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총지중 제65회 춘계 강공회 불사의식 개편, 포교활성화 방안마련



전국 사원스승님들이 지난 춘계강공회에 동참하여 불사의식 개편과 포교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총지중은 오는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 통리원에서 전국 스승 및 종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5회 춘계 강공회를 개최하여 종단의 운영방향과 현황을 조망하고 불사의식의 개편과 다양한 포교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의 활성화 등 다양한 안건으로 포교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신년례법회에서 제시되었던 안건들에 대해 중간평가와 더불어 개선점을 논의한다.

이번 강공회는 원의회 및 유지재단 이사회, 사회복지재단 이사회, 종의회, 승단총회를 각각 개최하여 종단의 현안문제를 개선하고, 종무행정의 활성화와 교세확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총기 33년도 결산감사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불사의식 및 수행체계개발, 도제양성, 사원신축 등 총지중의 교화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강공회에서는 청정한 계행과 수행으로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포교방안의 개발 및 사회복지의 활성화, 도제양성 등으로 종단의 종풍을 새로 진작시키고, 종풍의 기틀과, 도야의 발판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변화되고 발전된 종단의 미래를 설계하고 재조명하여 신심이 일어나는 수행공간 마련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더불어 종단의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승 총리원장은 춘계 강공회 개최에 즈음하여 "총리원장 취임 후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종단을 운영할 있었던 것은 승단의 화

합된 모습으로 건전하고 발전적인 건의와 더불어 수행자로서 자기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종단은 종생의 집착과 분별심을 버리고 원용의 자세로 생활하기 위해 매진할 것이며, 또한 종단의 운영은 총리원과 집행부만의 고유업무가 아니라 전 승단과 교도들이 상호협력하는 적극적인 동참과 종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상생의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스승님과 교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열린 행정 구현과 종단의 발전을 위해 미천하지만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번 강공회에서 종단의 발전을 위해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기를 서원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총지중은 종전까지 강공회가 각종 회의 형태로 진행되어 강공회의 운영형태를 변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강공회에 시행되었던 강공이 스승들에게 사법을 전달하고, 스승들간의 선문답과 교리공부를 주로 하였던 점을 상기하면서 이번 강공회에서는 이러한 전통을 살리기 위해 강공과 화의를 분리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영혼 위령제

한일국교 40주년을 기념하여 1945년 태평양 전쟁으로 타국에서 희생된 한국인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합동위령제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정토종 총본산 우천사에 총지중 우승 총리원장을 비롯하여 한일 불교 대표단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이번 위령제는 한국의 불교 대표단과 국회정각의원, 일본의 불교대표단과 일원, 정계, 외무성의 고위관료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측의 개식사, 양국의 표백문, 헌화, 추모사, 평화기원문, 반야심경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법회에서 양국 대표단은 "참혹한 전쟁으로 인해 희생당한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일 불교도는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성대종사 열반1주기 추선불사 선배 유훈 살리고, 용맹정진강조



수성대종사 열반1주기 추선불사에 전국 스승과 교도가 참석하여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있다.

지난해 입적한 총지중 8대 종령 수성대종사 열반 1주기 추선불사가 지난 29일 대구 개천사에서 총지중 효강 종령예하를 비롯하여 스승과 교도, 유가족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이번 추선불사는 개식사, 헌화 및 훈향정공, 유가삼발, 추복법문, 발원문, 반야심경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불사에서 효강 종령예하는 "수성대종사님의 극락왕생을 지심으로 발원하며, 수성대종사님은 청정하고 건실한 수행으로 무릇 많은 종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시고, 종단이 어려울

때마다 용기를 주시며, 종단발전을 위해 용맹정진하셨습니다. 승단은 선배 스승님들께서 일구어는 교화의 기틀을 잘 유지하여 그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

죽비소리

말하는 것이 모두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남까지 해치지 않음을 착한 말이라 하며 항상 사랑스러운 말로 남을 기쁘게 하고 또한 모든 악을 짓지 않아야 하니

부처님 말씀대로 말을 한다면 반드시 안락을 얻어서 열반에 나아가고 온갖 괴로움 끊고서 착한 말을 칭찬하리라 진실한 말은 단 이율로서 가장 귀상이니 진실한 말은 마땅히 큰 이익 얻을 것이요

『별역잡아함경』중에서

일선사원 실태파악, 업무활성화

총지중 일선사원 사무지도감사

총지중(총리원장 우승)은 지난 14일부터 2주 동안 통리원 시정 재무부장을 비롯하여 행정과 재단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무지도 감사팀을 구성하여 일선사원에 대한 업무지도와 더불어 청정하고 편안한 수행공간마련을 위해 각 사원의 실태파악, 일선사원의 고충과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일선사원 사무지도감사는 전국 사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화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일선사원과 업무의 통일성, 사원의 능률성 향상을 모색하고, 사원의 공간 활용성과 보수내역 등 실태를 파악하여 종무행정의 일관성과 능률성에 기여하고자 시행되었다.

특히 일선사원에 대한 사무지도감사는 통리원의 종무행정 활성화를 위해 시행에 대한 필요성이 몇 년전부터 제기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했었다.

이번 일선사원사무지도를 총괄하는 시정 재무부장은 "중앙집권적인 종단의 행정 구조상 일선사원에 대한 사무지도는 정기적으로 시행되어 일선사원에 대한 업무의 편익성과 쾌적한 수행공간마련, 일선사원 스승과 교도들의 당해 사원에 대한 운영의 합리화를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였으나 종단의 사정상 시행되지 못했던 점이 아쉽고, 앞으로는 정기적인 사무지도 감사를 통해 일선사원의 교화활성화와 의견수렴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통리원에서는 서류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 현장방문을 통해 사원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번 사무지도감사를 통해 종무행정의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수렴된 의견과 현황을 바탕으로 일선사원에 교화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도록 자기 수행에 철저히 하며, 종생을 제도하기 위해 불철주야 용맹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대종사는 1930년 경북 영일에서 출생하여 불교와 인연을 맺어 수행을 하다가 총지중 창종 당시부터 대구에 있는 개천사, 제석사, 단음사 등 대구·경북지역에서 여러 사원을 개설불사하며 총지중을 반석위에 올려놓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대구·경북 교구장, 중앙종의회 의장, 종립 동해중학교 이사장, 제8대 종령 등을 역임하며 종단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종무행정을 관장하였으며 철저한 계행과 수행으로 총지중의 종풍을 진작시켰다.

수성대종사는 생전에 총지중 스승과 교도들에게 "종단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며 원정 종조님의 교상과 사상을 계속 발전시키며, 원정 대성사님께서 깨달음에 이르셨던 이치와 인과법과 담체법문을 통해 모든 승지자 및 교도들이 업장을 소멸해야 하며, 철저한 계행과 수행으로 용맹정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제65회 춘계강공회

금강같은 정진, 교화의 혁신과 종단의 발전...

종조 원정 대성사님께서 홍포한 밀교의 주옥같은 진언,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뢰와 사중수법으로 교화와 포교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도모하고자 춘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스승님들께서 수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총기34년 4월 18일(월) ~ 총기 34년 4월 22일(금)
- 장소 : 불교총지중 통리원
- 대상 : 종단산하 전 스승님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우 승

사설

춘계강공회를 맞이하여

이번 달 중순에 전국 스승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5회 춘계강공회를 개최한다. 강공회는 창종시 종단의 의식과 의례의 통일성을 기하고, 각 사원의 스승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화경험담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교화의 어려움을 극복, 교화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스승님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뜻 깊은 자리이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강공회가 회의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강공회 참석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개선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강공회에 건의된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안건들이 실현되지 못하고, 논의만 되어 왔다는 지적이 대두 되어왔다.

다행히 이번 강공회 부터는 종전 회의 위주의 강공형태를 변화하여 창종시 종조님께서 제창하셨던 강공의 의미를 되새겨 여러 스승님들과 의식과 의례의 개선점과 발전방안, 교화경험담 교환, 스승님들에 대한 교리강화, 불단과 의례의 통일성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교육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다행스런 일이다.

그동안 종단은 강공회를 매년 봄, 가을 두 번씩 시행하여 종단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왔다. 그러나 강공회에서 논의된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안건들이 실현되지 못하고, 매년 강공회를 개최할 때마다 예전에 건의되었던 안건들이 그대로 다시 상정되는 등, 교화방편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의 개발없이 발전적인 안건들이 단지 건의형태로 논의만 되어왔기 때문이다.

강공회가 의미있고, 발전적인 강공회가 되기 위해서는 종단의 집행부를 비롯하여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종단의 발전적이고, 창의적, 혁신적인 안건을 단지 건의형태로 건의하지 말고, 구체적인 실행방법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강공회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참석자들에게 만족감을 제공해야 한다.

종단의 교육체계 정비가 시급하다

현대는 정보화시대로 시대의 흐름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교의 포교형태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동승하지 못하는 종교단체는 소멸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각 종교단체는 승직자를 비롯하여 종사자들에게 정보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리더십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법제고시, 자격제도 등 교육체계를 정비하여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과 더불어 신입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모든 단체가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겠지만 특히 종교단체는 인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왜냐하면 훌륭한 선각자 한 사람이 수많은 신도들을 제도할 수 있으며, 한 사람으로 인해 종단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도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다. 이러한 도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꾸준히 지적,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만들어야 한다. 현재 총지중에서도 훌륭한 도제양성이 시급한 실정으로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현대인들에게 따뜻하고 신성한 감로수를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선각자에 목말라 하고 있다.

최근에 교계에서 급성장한 사원들의 공통점은 승직자와 신도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교리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확고한 신앙심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종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재들을 모집하고, 이러한 인재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정보화시대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교육과 포교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정보화시대 리더와 경영기법”

시무와 종무원, 사찰경영자 리더십교육



◇사찰경영자 단기양성과정에서 시무들과 종무원들이 리더십의 역할과 전략기법을 수강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총지중(총리원장 우승)은 지난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서울 통리원에서 시행된 시무교육에서 불교아카데미(원장 이해숙)산하 NGO미래경영 연구소 이영철 소장을 초빙하여 사찰경영자 단기양성과정 과정에 대한 강의를 시무와 통리원 종무원들에게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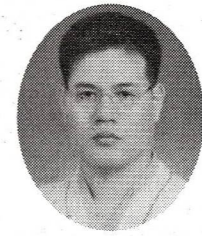
이번 시무교육 강의는 지식정보화시대의 리더와 자기혁신, 전략기획방법에 대한 이해, 패러다임의 전환, 비영리 마케팅과 사찰지역화 전략, 조직경영 ABC와 프로그램개발기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시무들에게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는 방법과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종교인으로서 포교방법에 대한 이론습득을 통해 일선교화에 활용하는 중요한 교육이 되었다.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에 참가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에 내재된 잠재력을 개발하고,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과 더불어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발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인간관계형성, 불교의 교리를 습득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알게 되어 유익하고 뜻 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익한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총지중 중앙교육원에서는 승직자의 질적향상과 수행력을 높이기 위해 승단 승직자의 재교육과 새로 입문한 승직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 가족문제 불교로 치료



김용주
총지중보사

한국사회는 급변하는 산업화로 인해 대가족주의에서 핵가족화로 가족구조가 변화되었으며 최근에는 독거노인과 같은 단독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가족의 중요성과 친밀성이 상실되어가고 갈수록 가족해체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가족원의 가족상당동기를 보면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가족상당의 요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의 비행문제, 폭행/학대/주벽, 정신건강 문제, 배우자의 부정, 가족원의 가출, 자녀교육/이성관계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족문제의 원인은 이론적 관점이나 대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될 수 있으나 주로 가족경제의 문제, 위계질서의 문제, 가족규칙의 문제, 역할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가족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은 남녀 두 사람간에 일시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역동적 상호작용인 부부관계에서 형성된다. 과거 전통적인 가족제도는 부자계승을 토대로 하는 대가족제였으므로 여자의 지위는 가족을 대표하는 가부장에게 예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급속히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개인주의적 사상이 팽배함에 따라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가문의 영속보다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게 되었고 가사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도 부부양성의 공동참여의 폭이 커짐에 따라 가족원간의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부부관계에서 부모는 자식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윤리적인 의미를 포함하며, 자식의 모든 행동은 언제나 좋다 나쁘다 하는 양단적으로 해석되곤 한다. 그러므로 자식은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하여도 역제하고 부모의 명령을 엄수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며 효라고 믿어 왔었지만 올바른 부부관계는 대등한 입장에서 토론하고 부모가 자식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을 수정하거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하며, 부는 권위적이고 지배지향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버려야 한다.

가족이라는 체계와 가족 외부의 세계를 분리시키는 경계선이 있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유동적일 경우 수시로 외부의 간섭을 받게 된다. 이 경우에 가족의 식이 결핍되며, 가족내의 상호지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가족에서는 가족원들간에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모르고 마치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하숙생들 같은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가족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가족간에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지 말라”, “남자아이는 울면 안된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 부정적인 감정이나 갈등은 표현되면 안된다” 등의 규칙이 존재하며 그러한 규칙을 무의식적으로 인지시켜주곤 한다. 그러나 가족간에 정상적인 규칙은 필요하나 병리적인 규칙은 오히려 가족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 단어이다. 사회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가족문제에서 출발할 수 있다.

가족의 문제는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간의 상호보완적인 요소로 인해 발생한다. 부부간의 관계, 부모-자녀간의 관계, 가부장주의적인 성차별의 문제 등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의 요소를 가진 개인만을 다루기보다 가족의 전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가 가족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는 가족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가족원들간의 상호이해의 공동참여의 폭이 커짐에 따라 가족원간의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가족간에 불교의 참나를 찾는 진리를 배우게 함으로써 삶에 대한 가치관과 의미를 찾고, 영적 모든 행동은 언제나 좋다 나쁘다 하는 양단적으로 해석되곤 한다. 그러므로 자식은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하여도 역제하고 부모의 명령을 엄수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며 효라고 믿어 왔었지만 올바른 부부관계는 대등한 입장에서

“인류사회 발전과 3국 불교의 역할”

한·중·일불교대회 10월24~26일 경주에서



◇우승 통리원장을 비롯하여 한·중·일 삼국의 불교대표단이 제8차 우호대회 일정과 프로그램을 논의하였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는 3월 15일 제주 라마다 플라자 호텔에서 우승 총지중 통리원장을 비롯하여 중국불교협회 일중환 국제교류협회 대표단과 예비회의를 갖고 제8차 한중일 대회를 경주 불국사 일대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10월 24~26일

경주 △불교미술대전 △불교환경 사진전시회 등을 부대행사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과 중국대표단은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비구 20명, 비구니 20명 수준으로 제4차 한국 불교 수행 중국체험단을 초청하기로 합의했다.

알림방

- 4월 3일 법상원기로스승 열반1주기 추념불사를 밀 행사에서 병행합니다.
- 상반기 49일 회향불공을 4월 8일 전국사원에서 병행합니다.
- 제65회 춘계강공회를 4월 18부터 22일까지 통리원에서 개최합니다.
- 총지중에서는 사회복지학과와 유아교육학과 전공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종단의 산하기관에 채용코자 하니 해당자는 통리원(02-552-1080)으로 연락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눕시다

2005년 2월 26일부터 2005년 3월 25일까지

개천사 무명씨 5,000	기로원 상지화 10,000	법성사 노두선 10,000	정각사 김집남 10,000	총지사 지심행 10,000
개천사 이희권 10,000	단향사 공철봉 3,000	법황사 정우숙 10,000	정각사 남숙자 20,000	혜정사 대지희 10,000
건화사 김경민 10,000	만보사 배정임 10,000	선림사 대 덕 10,000	정각사 박훈취 10,000	혜정사 박순취 50,000
건화사 수심정 10,000	밀인사 신대식 5,000	선림사 심지장 10,000	정각사 신옥필 5,000	혜정사 수증원 10,000
건화사 지 광 10,000	밀인사 신동의 5,000	성화사 우담바라 100,000	정각사 윤선자 10,000	혜정사 해보심 10,000
관성사 이해원 5,000	밀인사 신동희 5,000	수인사 김봉기 10,000	정각사 이란이 10,000	화음사 강순란 5,000
관성사 황성녀 10,000	밀인사 이연수 10,000	실지사 박병성 5,000	정각사 조필현 5,000	무명씨 10,000
기로원 대 관 10,000	밀인사 이재호 10,000	실지사 정우석 10,000	정각사 최분순 10,000	무명씨 5,000
기로원 대자행 10,000	밀인사 이해성 5,000	자석사 우바이 60,000	정각사 황영숙 10,000	무명씨 5,000
기로원 법장화 10,000	백월사 박삼순 10,000	자석사 조장환 40,000	정심사 박옥란 20,000	박남섭 20,000
기로원 불멸심 10,000	백월사 임승민 6,000	정각사 구정희 20,000	총지사 이인성 40,000	최순전 1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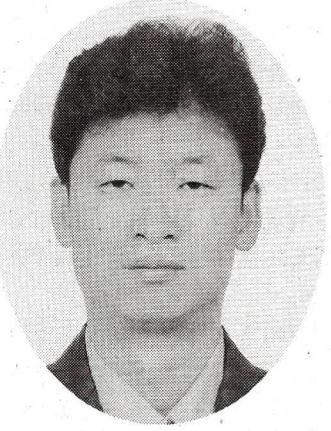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총지칼럼

새로운 방생 문화를 위하여



김종인

- ▲(현) 총지중 법장원 연구원
- ▲(현) 고려대학교 BK21 연구 교수
-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불교 연구로 철학 석사 (1994)
- ▲스토니브룩 대학교 불교 연구로 철학 박사 (2002)

방생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우며, 넓은 사랑의 의미를 지닌 종교적 실천행위이다. 방생에는 모든 생명체는 나와 같이 느끼고 생각하며, 나

의 생명이 소중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체의 생명이 소중한 것이라는 보편적인 사랑의 정신이 들어 있다. 한 마리 들짐승도, 한 마리 새도, 한 마리 물고기라도 결코 "일용할 공양"으로, 포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소중한 생명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찰에서 해마다 몇 차례의 방생법회를 여는 것은 방생에 담겨 있는 이러한 정신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방생법회를 주관하는 승려들이나 참가하는

신도들이나 모두 적어도 머리로는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불교인들이 행하고 있는 방생의 실상을 보면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방생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보면 이렇다. 우선 방생 장소로는 유명 관광지 인근을 설정한 다음, 방생법회 신청자를 모으고 그들로부터 동참금을 받는다. 그런 다음 여행사에 연락하여 관광버스를 빌린다. 이렇게 관광 여행을 위한 민간의 준비를 한 다음, 방생 법회 당일이 되면

방생용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급하는 가게에 연락하여 미꾸라지나 자라를 단체로 구매한다. 먼 여행길을 견디려면 생명력이 강한 물고기여야 하기 때문에 늘 미꾸라지 아니면 자라다. 봉어나 잉어로 했다가는 여행 도중에 모두 죽어 버릴 터

관광여행을 위한 방생문화 지양 모든 생명체가 잘사는 자연환경 조성

이니 안 된다. 방생에도 적자생존의 법칙이 작용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미꾸라지나 자라가 운이 좋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들 역시 놀부의 욕심에 다리가 부러진 제비 처지나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더욱더 어이가 없는 일은 방생법회가 열리고 모진 여행길을 견디 미꾸라지나 자라를 물에 놓아 준 다음 벌어진다. 이렇게 놀부 제비다리 치료하기식 방생을 한 다음, 이제부터는 완전히 관광 여행이다. 순백치고 노래하고 왁자지껄 놀이판

이다. 어디 그뿐인가.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심지어는 점심으로 생선회를 시켜서 맛나게 먹기까지 한다. 그나마 추어탕이나 자라탕을 먹지 않는 것이 다행스러운 정도이다.

이런 식의 방생은 아무런 복과 덕을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집짐승이 정성스레 새끼를 키우는 모습을 보지도 못했다. 정육점의 닭이나 돼지고기, 혹은 쇠고기는 그저 고깃덩이일 따름이지, 그것이 비명을 지르며 피를 쏟고 죽는 생명체의 시신이란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 횡집 수족관의 물고기를 보아도 결코 방생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운영 원리상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놀부 제비다리 치료하기식의 방생을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각도에서 방생에 대해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방생은 오늘날 인류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의 해결과 연결시켜 보는 것은 방생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방생을 좁은 의미에서 사로잡힌 동물을 놓아주거나 구해주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모든 생명체가 잘 살아가는 생명체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산짐승과 들짐승의

오늘날 자연환경의 오염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공기,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 편안히 쉴 수 있는 숲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자연 환경의 오염은 동물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산짐승들은 산림의 남벌과 개발로 서식지를 잃고 있으며, 물고기들은 강과 바다에서 폐죽음을 당하고 있다. 그나마 살아남은 짐승들은 또 밀렵꾼들의 사냥감이 되고 있으며, 물고기들은 촌충한 그물물에 씨가 마른다. 바로 이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죽음을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필요한 방생이다. 자연보호운동이야말로 오늘날 불교인들이 해야 할 참된 방생활동이라 할 수 있다.

천만 불자들이 방생의 날을 정하여 한꺼번에 산에 올라가서 짐승을 잡기 위한 울기미를 치우고, 강과 바다의 불법 그물들을 걷고, 쓰레기를 치우고, 오염물질을 수거한다면 천만 불자의 몇 십 배나 되는 숫자의 생명들이 삶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도시화 산업화의 그물에 갇힌 생명들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달의 설법문안

한번 참아내면 길이 즐겁다

"고통이 뒤따르는 세상의 즐거움에 어찌 탐착하여 한 번 참으면 길이 즐겁거늘 어찌 닦지 않는가. 도인의 탐욕심은 수행인의 수치요, 출가인이 재산을 모으는 것은 군자들의 웃음거리니라"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인도말 '사바'는 감인(堪忍) 또는 잡회(雜會)로 번역됩니다. 감인은 '견디고 참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 세상이 참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임을 말한 것입니다. 잡회는 온갖 잡된 것들이 얽히고설킨 것으로,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임을 나타낸 말입니다.

참을 인(忍)
참는다는 것은 괴로운 것만 참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도 참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괴로운은 나에게 맞지 않는 역경계(逆境界)입니다. 따라서 괴로운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은 나에게 아주 맞는 순경계(順境界)입니다. 따라서 즐거움이 다가오면 참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인연에도 순연(順緣)과 역연(逆緣)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와 반대는 역연의 사람이 잘못되면 조금도 슬퍼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순연의 사람은 조금만 잘못되어도 크게 가슴 아파합니다.

이처럼 순연이나 순경계보다 역연이나 역경계를 이겨내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도를 닦는 사람은 역경계보다 순경계를 더욱 조심해야 하고, 순연에 빠지지 않도록 한결 마음을 다져야 합니다.

옛날 한 늙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성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꿈에 부처님이 나타났습니다.
"네 정성이 지극하니 너에게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일러 주겠다. 네가 지금부터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성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 곧 열라대왕 앞에 나아갈 터이다. 그때 열라대왕이 어떤 시련을 가하더라도 절대 말을 해서는 안되니라. 그 고비만 잘 넘기면 너는 반드시 성불을 이룰 것이다."

이 세상은 참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곳 수행자는 천번 같고 만번 단련해야

그때부터 이 수행자는 입을 딱 다물고 어떤 경우에도 침묵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마침내 죽어서 열라대왕 앞에 나아갔는데, 열라대왕이 어떤 말을 물어도 절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다. 그러자 열라대왕은 온갖 모진 고문을 하면서 말을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 고통이 있어도 성불하기 위해서 참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모진 고문을 다 이겨내었습니다.

고문으로 수행자의 입을 열게 할 수가 없음을 안 열라대왕은, 이번에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회유하였습니다. 말만 한 마디 하면 앞으로 영원히 부귀복락을 누리게 해 주겠다는 감언이설에서부터 시

작하여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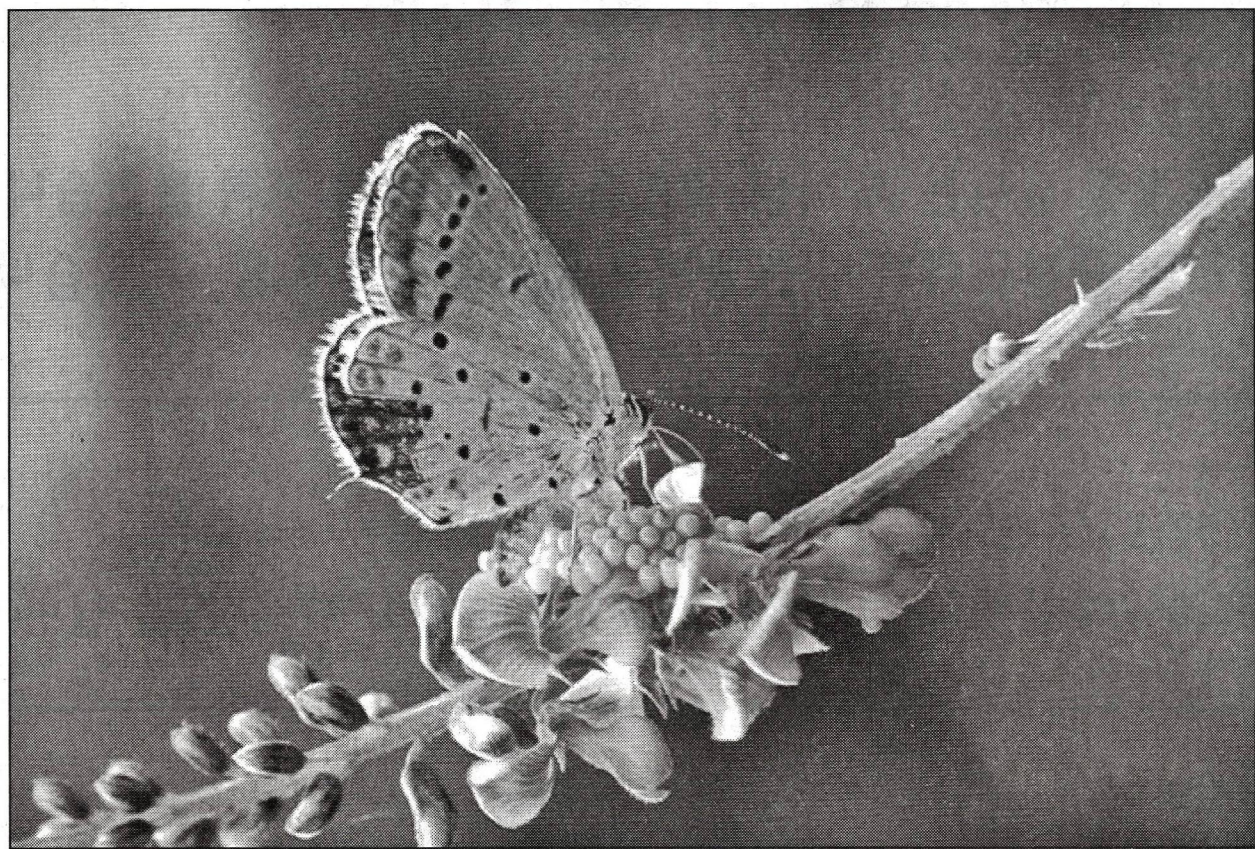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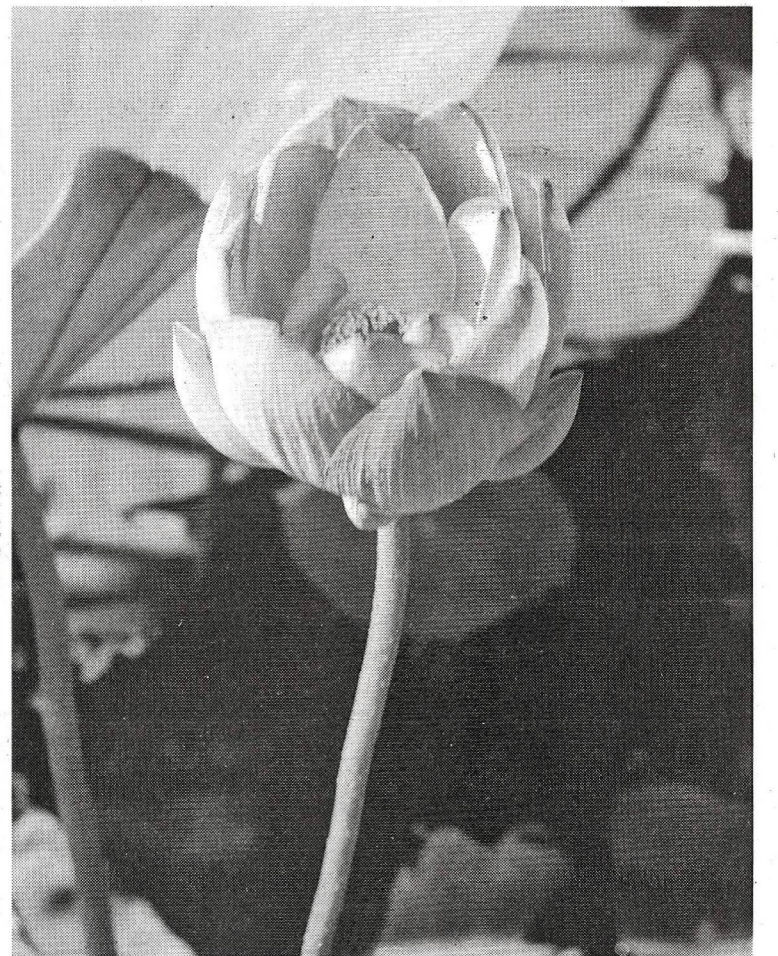
그러나 수행자의 의지는 꺾일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놈이로구나. 안되겠다. 최후의 수단으로 그 말을 끌고 오도록 하라!" 열라대왕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사자들이 암말을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이 말이 두군지 알겠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말이 바로 네 에미이다." 놀란 수행

성불하기는 틀렸구나!"

이처럼 역경계를 참는 것 보다 순경계를 참는 것이 어렵고 역연보다는 순연을 이겨내기가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 고비만 넘겼으면 수행자는 성불할 수 있었을 텐데 한순간 복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여 기회를 놓쳐버린

금방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막대기로 땅에다 하늘 천(天)자를 써놓아 보십시오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그 위를 덮으면 금방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나 눈이 오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쓰고 또 쓰면, 눈이 많이 쌓여도 하늘 천자는 그대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천마만련(千馬萬鍊), 천 번 같고 만번 단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닦을 수(修)자인 것입니다.



한마리 나비의 날개짓으로
지구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
총지정보사의 작은 몸짓이
총지중의 역사를 만듭니다.

법 / 추 / 지 / 앞 / 는 / 사 / 람 / 들 / 총 / 지 / 중 / 보 / 사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25

태장계만다라 '관음원(觀音院)'의 풍재보살(豐財菩薩) · 불공견색관음보살(不空羼索觀音菩薩)

지난 호에서 관음원의 피업의보살(被業衣菩薩)과 백신관 자재보살(白身觀自在菩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풍재보살(豐財菩薩)과 불공견색관음보살(不空羼索觀音菩薩)에 대해 살펴 본다.

풍재보살(豐財菩薩)

풍재보살(豐財菩薩)은 관음원(觀音院)의 셋째줄 백신관자재보살의 서쪽에 봉안된 보살로서 자재주보살(資財住菩薩)이라고도 한다. 풍재(豐財)란 재물(財物)의 풍족(豐足)함을 의미(意味)한다. 『대일경(大日經)』에는 자재주(資財主)라고 번역되어 있다. 『대일경소(大日經疏)』에 의하면 풍재보살(豐財菩薩)은 복덕(福德)과 지혜(智慧)의 복(祿) 풍족(豐足)하여, 안녕(安寧)과 행복(幸福)을 구(求)하는 자에게 자재(自在)하게 복(祿)을 시여(施與)한다고 설(說)하고 있다.

그래서 밀호(密號)를 여의금강(如意金剛)이라 한다. 여의(如意)는 여의보주(如意寶珠)로서 진귀한 보배구슬을 뜻한다. 당연히 보배를 지닌 보살이므로 여의금강보살이다. 삼매아형은 미부(未敷)한 연화(蓮華)와 개부(開敷)한 연화(蓮華) 두 가지로 나타난다. 완전한 핀 연꽃과 덜 핀 연꽃이다.

존형(尊形)은 백육색(白肉色)으로 왼손에 개부(開敷)와 미부(未敷)의 두 가지의 연화(蓮華)를 들고 있다. 미부연화(未敷蓮華)는 머리의 왼쪽부분, 개부연화(開敷蓮華)는 오른쪽으로 뻗어 있는 모습이다. 오른손은 손바닥을 위로 짓고, 약지(藥指)·무명지(無名指)를 구부려서, 어깨쪽으로 올리고 적연화(赤蓮華)에 얹어 있는 모습이다. 결인은 연화합장(蓮華合掌)을 하고 있다.

『대일경소』에 보면, 오른손에 뻗어 있는 개부연화(開敷蓮華)는 부처의 지혜(智慧)의 재보(財寶), 왼손에 뻗어 있는 미부연화(未敷蓮華)는 중생(衆生)의 마음에 불종(佛種), 즉 불성(佛性)이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음을 나타낸다고 해석(解釋)하고 있다. 풍재보살(豐財菩薩)의 범어명칭(梵語名稱)으로부터 추측하건대, 이 보살은 '풍부(豐富)한 혜택(惠澤)을 가져다주는 신성(神聖)함'을 주는, 인도의 전통적인 여신(女神)의 이미지를 띠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보살의 진언은 '옴 아리아다리아리 사바하'이다. 풀이하면 '옴! 신성(神聖)한 보지자(保持者)여! 사바하!'의 뜻이다. 혹은 '옴 아리아 보가바티 사바하'라고도 한다. '옴! 신성(神聖)한 풍재(豐財)여! 사바하!'이다.

불공견색관음보살(不空羼索觀音菩薩)

불공견색관음보살은 관음보살이 변화한 여섯 관음보살 가운데 한 분으로, 산스크리트로는 '아모가사파'라 하는데, 이를 뜻풀이로써 이를 불여졌다. 태장계만다라 관음원의 제열 제4위에 배열하고 있는 보살이다. 견색(羼索)이란 그물(網)과 조사(釣絲-

낚시줄)를 가리킨다. 이를 비유하여 설명하자면, 대비(大悲)한 그물로써 번뇌에 해매이는 중생이라는 '새(鳥)'를 포획하고, 수확을 올리기 위하여 낚시줄을 드리워 생사의 고해(苦海)에 빠진 중생이라는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견(羼-그물)'과 '색(索-동아줄)'은 무명중생을 피안(彼岸)으로 인도하는 밧줄이라는 뜻이다.

이 불공견색관음보살에는 일면(一面), 삼면(三面), 십일면(十一面), 이비(二臂), 사비(四臂), 육비(六臂), 팔비(八臂), 십비(十臂), 십팔비(十八臂), 삼십이비(三十二臂) 등 서로 다른 상(像)들이 많이 있다. 이 보살이 표방하고자 하는 뜻은 『불공견색경』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경은 과거세에 관자재보살이 세자재왕어래(世自在王如來)로부터 받은 불공견색관음다라니를 염송하면 현세에 20가지의 공덕을 얻고, 임종시에는 87가지의 복덕을 얻을 수 있다고 설하고 있다. 어떤 경전에 의하면 효행을 하는 자식

이 모친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사슴 가죽옷을 걸치고 사슴의 젖을 구하던 차에 사냥꾼이 잘못 쏘아 버리고 말았는데, 신들은 그의 죽음을 불쌍히 여겨 소생시켰고 모친의 눈도 고쳐주었다고 한다. 여기서 효자는 불공견색관음보살의 전생 모습이었다고 한다. 그와 같은 인연으로 하여 이 보살의 본존은 사슴 가죽옷을 걸친 모습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또 사슴은 짐승 중에서도 특히 새끼를 품격이 생각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징적 의미로서 '사슴 가죽옷'을 입고 있는 것이며, 이를 걸치고서 불쌍한 중생들을 구제하고 있다. 특히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보살이라고 한다. 어머니 새끼를 위한 마음이 그대로 투영된 보살이다.

그래서 이 보살의 밀호(密號)를 '등인금강(等引金剛)'이다. 모든 중생들을 인도하는 금강같은 보살이다. 삼매아형은 이름 그대로 '그물과 줄'인 '견색(羼索)'이다.

존형(尊形)은 백육색(白肉色)으로 보관(寶冠)에 화불(化佛)을 받들어 이고 있는 모습이다. 얼굴은 세 개요, 얼굴마다 세 개의 눈을 가지고 있고, 팔은 넷이다. 왼쪽 첫 번째 손에는 활짝핀 연꽃을 들고 있고, 두 번째 손에는 견색을, 오른쪽 첫 번째 손에는 염주, 두 번째 손에는 빗을 물을 담은 항아리를 들고서 사슴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붉은 색 연꽃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인상(印相)은 불공견색인(不空羼索印)이다. 이 인은 연화합장을 하고 두 개의 인지(人指), 두 개의 엄지를 바깥쪽으로 결박하고 오른쪽 엄지를 왼쪽의 엄지와 인지 사이에 넣는 결인이다.

이 보살의 진언은 '옴 아보가 한드마 함사 고로다 가라사야 하라베이사야 마카하자하티 엠마 바로다 코베이라 보라간마 베이사다라 한드마고라 삼마야 홀 홀'이다. '옴! 불공(不空)의 연화와 견색을 지닌 분노존이여! 끌어당겨 들어가게 하라! 커다란 시바신이여! 염마천이여! 증장천이여! 범천의 모습을 취하는 자여! 연화부(蓮華部)의 서원을 세운 자여! 홀! 홀!'이란 뜻이다. (자료정리 : 통리원 교정부)



풍재보살



불공견색관음보살

생활속의 밀교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자

▶ 얼마전 우연히 책방에 들렀다가 관심을 끄는 책이 있어 눈여겨 읽어 보았다. 그 책의 소제목에는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자'는 글이 적혀 있었다. 책내용의 요지는 이렇다.

『사업에서나 사람관계에서 수완이 좋거나 교섭능력과 설득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흔히 말을 잘하거나 추진력이 있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사실은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거나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적으로 업무를 잘 수행한다고 한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면 우선 상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의 기본은 신뢰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에 따라 대할 줄 알아야 한다. 세상에는 자기 얘기만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자신을 이해해 주기 바라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그런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자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상대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는 이는 그리 많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은 좋은 사람으로 느끼게 할 수 있다. 남의 얘기를 경청하면 상대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고마움을 느끼며 호감과 신뢰를 갖게 된다.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뿐만 아니라 복잡한 마음까지 깨끗하게 정리해준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으로부터 그 상대가 특별한 존재로 느껴지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여섯 가지 방법을 이렇게 일러준다.

『첫째, 대화의 주제를 상대에게 맞춘다. 자신의 이야기는 최소로 줄이고 주로 상대방의 주제에 대해 같이 이야기한다.

둘째, 상대의 이야기에 적극적인 반응과 호감을 표시한다. 이는 상대의 말에 관심과 공감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대는 상당히 신뢰감을 갖는다.

셋째, 다양한 표정으로 상대와 시선을 맞추며 이야기를 듣는다. 이것은 이야기를 아주 잘 듣고 있다는 표시이다.

넷째, 열심히 듣는 자세를 보여준다. 다섯째,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는다. 이야기를 끊으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화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며, 상호 주고 받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대화이다.』

▶ 중생의 소리를 가장 잘 들어주는 보살(菩薩)과 천왕(天王)으로는 관세음보살과 다문천왕(多聞天王)이 있다.

관세음보살은 '일체중생의 고통을 다 들어주는 보살'이다. 관세음(觀世音)은 '세상의 음성을 모두 관한다. 즉 듣는다'는 뜻이다. 다문천왕은 더 적극적인 존상(尊像)이다.

우리 종단에서 상하반기로 봉행하는 진호국가불공에서 만다라관(曼荼羅觀)을 행할 때마다 부르는 4대천왕 가운데 한분이 '다문천왕(多聞天王)'이다.

다문천왕은 항상 부처님을 옹호하면서 많은 설법(說法)을 듣기로 유명한 천왕이다. 부처님의 법문을 쉬임없이 듣는 '다문천왕'과 같이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진언행자가 되어 보자.

(법경/사무국장 겸 연구원)

진언수행의 길

총지종의 불사위계 가운데 맨 처음 행하는 것이 실천서원이다. 이 실천서원은 곧 불제자로서 본분을 다하고 자리아타의 보살도 정신을 발휘하여 일체중생의 제도와 상불에 전심전력하겠다는 다짐이자 대서원이며, 부처님께 드리는 실천약속이며,

실천서원

이 실천서원은 금강함을 하여 스승님이 한 줄씩 선행하면 대중이 따라서 외운다. 이 실천서원은 불교의 모든 수행정신을 담고 있다. 인욕과 하심은 수행자가 지나야 할 실천수행의 기본 덕목이다. 인욕하고 하심하는 마음이 없으면 수행에 큰 장애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차 삼독심에 깊이 빠져 진정한 수행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인욕은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을 굳건히 참

고 견디어 내는 것이요, 하심은 인욕하는 바로 그 마음이다. 곧 인욕이 하심이고, 하심하는 것이 곧 인욕이다. 인욕을 위해 한없이 내 마음을 낮추는 것이 하심인 것이다. 무릇 수행자는 인욕과 하심으로 모욕이나 박해를 인내하고 더 나아가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에서 마음을 안정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인욕과 하심을 수행의 기본과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참수행의 실천은 대승적 보살행이요, 곧 대자비와 지혜를 일으켜 보리를 얻고, 자리아타의 정신으로 중생을 제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화도중생이 오세대제도이며, 자리아타의 수행과 중생제도를 위해 오로지 용맹정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불공시 입만으로는 하는 서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실천서원'을 진정으로 실천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을 때 참 수행이요, 참 불공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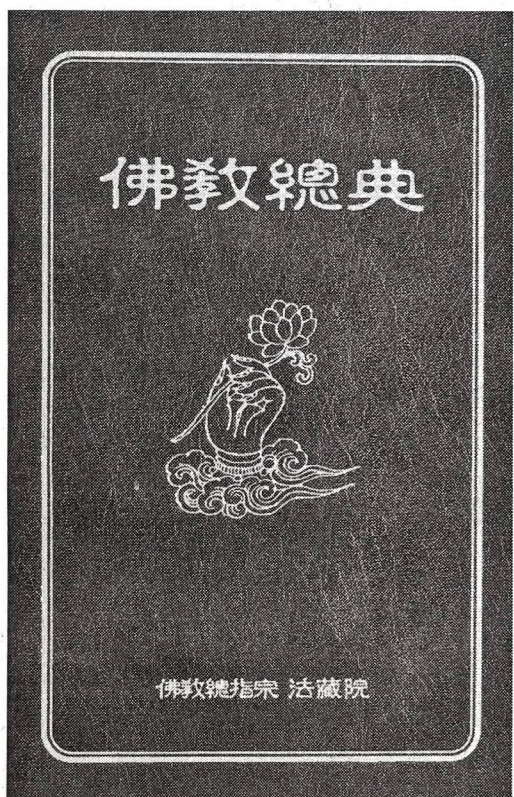
불교경전의 정화(精華)! 『불교총전』

팔만대장경의 주옥같은 말씀을 이 한 권에...

팔만대장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 한 권에 가려 뽑았습니다. 《불교총전》한 권으로 불교의 근본교리와 실천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교법(教法)/수도(修道)/업감연기(業感緣起)/ 자기에 대한 덕의(德義)/타인에 대한 덕의(德義)/포교와 구경해탈 및 열반



국판 고급양장 금박/700페이지/정가 35,000원

도서출판 불교총지종 Tel :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총지법문

‘중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

중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의 중흥과 함께 초창기 진각종의 기틀을 다지셨고, 이후에는 의계(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인 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중조님의 습결과 생전의 가르침을 유고(遺稿)를 통해 다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고는 진각종 재직 당시 총인으로 계시면서 쓰신 내용이며, 「중조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원고 가운데 일부입니다. 중조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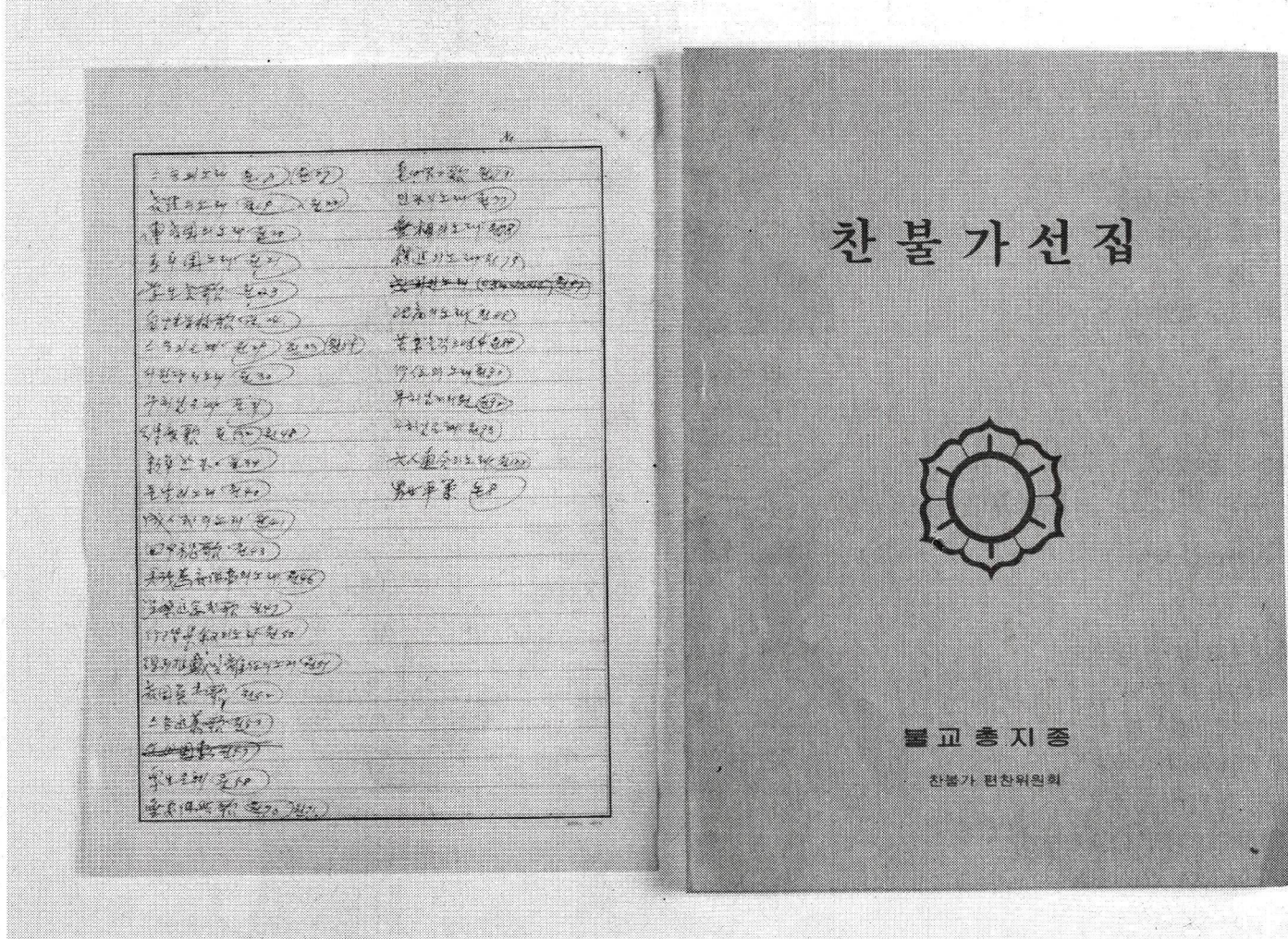
물과 심의 이원 진리 해설

사람이 대개 인정만을 쓸 줄 알고 성품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는 드물다. 물질에 감동된 희, 노, 애, 구, 애, 오, 욕, 칠정에 순전한 성품이 점점 남아지고 병들게 되는 것이 마치 봄에 장다리가 무성하여 꽃이 피고 씨가 맺음에 따라 그 뿌리 무우의 연한 본질은 질긴 심으로 변해가는 것과 같으므로 물질 문명이 왕성하여 여러 가지 정이 발동되어 질때는 성품을 밝게 하고 깨닫게하는 교를 믿어서 성과 정이 균등해지는 물심이원으로 발전하여야 그 물질문명과 같이 장원하게 살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무정한 물의 변함없는 진리를 발전하여 쓰게 되는 이때는 중생심의 변함없는 진리도 같이 발전하여 이원으로 쓰게 되어야 한다. 만약 물심 어느 하나가 그 시대성에 어긋나면 서로 보조가 맞지 않아서 일체의 병폐가 일어나게 된다.

물리과학 밖에 없는 줄 알고 심인진리를 무시하는 국가 사람들의 병폐를 대략 들어 말하면 제일 유물사상에 넘쳐서 좌경에 돌아가기 쉬우며 그 국가사회에는 살인, 강도, 절도가 많이 일어나고 성적으로 만행과 치정(치정)이 많이 일어나며 그 국민은 여러 가지 병으로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중에도 흔히 폐가 나빠서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는 병을 잘내며 위장병을 많이 가지며 맹장에 병을 잘내며 늑막염을 많이 일으키며 술과 아편 중독으로 폐인이 되며 젊은 사람이 눈이 어두워서 안경 없이 못살게 되며 오장중 심장이 약해져서 정신에 병을 많이 지니고 있다.

그 중에는 과학 하나만 편벽되게 알다가 정신이 정도되어 아주 미친 이도 있고 물질에만 너무 아는 것이 병 되어서 다른 이의 말과 뜻을



이 변함없는 물의 진리를 연구하여 공업과 농업이 발달하고 의식주가 고도로 발전하여 해륙공을 물론하고 교통을 발전하여 세계를 일민으로 움직이고 우주를 개척하여 광의적으로 살아가자는 이 때에 사람이 악을 지으면 화가 일어나고 선을 지으면 복이 일어나는 인과, 곧 변함없는 심의 진리를 개발하여 물심양면으로 마이너스에 플러스와 같이 심의 진리를 깨닫고 체득하여 이원으로 살도록 법계에서 미리 작정되어 있는 것을 모르므로 고등교육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후진국가 사람들은 대개가 물에 대한 가르침은 지중하게 알고 심에 대한 진리는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병폐를 많이 일으켜서 고동하고 있는 지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과학으로써 물에 대한 변함없는 진리를 발전한 결과 상공도시와 농어촌 정치 경제 기타 일반 국민들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활동하고 있는 이 때에 심에 대한 진리도 같은 시대의 방법으로 국민이 다 본래 성품을 보존케 할 수 있는 교를 자유로 믿어야 한다는 것은 자유국가의 상식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물리가 밝아서 물질이 발달하면 반대로 사람 마음에는 탐진치가 일어나고 마음에 탐진치가 일어나면 성품이 어두워지는 연고로 물질문명이 발달하는 이때는 지혜가 밝게 되는 종교가 그 집에 있어야 그 집을 보존하게 되고 그 나라를 보존하게 되고 그 사회가 같이 발전하게 되는 까닭이다.

비유하면 뜰안에 있는 나무가 매일 자라나고 있으나 매일 보는 사람 눈에는 그 크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일년 뒤에 보고 이년 뒤에 보면 그 큰 것을 알게 되며 한 철년이 지나면 꽃이 피고 열매가 여는 것과 같이 우리 심인 공부도 매일 매일 그 성품이 좋아지고 있으나 매일 보는 사람들은 그 성품이 좋아지는 것을 모르며 일년 삼년 한 철년 뒤에 보면 성품 좋아진 것이 보이느니라.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고 하루 한달에 성인이 안되고 부처가 안되고 인격이 완성 안 된다고 발심하여 심공하는 사람을 심공 못하게 하는 것을 허다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음을 알고 가족간에 서로 어떻게 하더라도 꾸준히 심공해 가도록 도와 주어야 할 지니라.

(자료제공 : 종학연구원)

물질만 추구하고 심인진리 무시하면 국가 병폐 악을 지으면 화가 일어나고, 선을 지으면 복이 일어나 심인진리 공부하면 지혜 밝혀 인격이 완성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심분의 일 정도 미친정신, 심분의 이 정도 미친정신, 심분의 삼 정도 미친정신, 심분의 사 정도 미친정신, 거반 미친정신이 모두 심의 진리를 세우지 않는 소치라 이와 같이 정신에 병이 들어 있는 연고로 사람은 반드시 천하고 공경해야 할 어버이에게도 아는 것으로서 공경치 못하고 지조를 가지고 자손

을 길러야 할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한 마음으로 백년을 해로해야 할 부부에도 흔히 의심하는 병을 내며, 또 서로 사견, 집착과 아는 것으로서 불화하여 자식들을 고독하게 만들어 두고 서로 갈리기를 예사로 하고 병에는 약을 먹는 줄만 알고 마음고쳐 낮게하는 법을 믿지 않으므로 난치병을 가진 이가 고등교육을 받은자

가운데 허다하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대개가 물에 대한 가르침을 지중하게 여기고, 심에 대한 교리는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고로 이 때는 물심양면으로 진리를 발전하여 이원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수소와 산소에 물이 되고 마이너스와 플러스에 불이 나는 것은 변함없는 물의 진리라. 이와 같



김장규 원장의 총지 동의보감

인터넷 중독증 (2)

중독의 일종으로 보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정신치료, 가족치료, 행동수정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게임중독 아

이들은 다른 질환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치료도 같이 병행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 아동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게임중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는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 치료를 병행하면서 게임중독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게임 중독의 치료는 일단 아이의 컴퓨터 사용 패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주로 언제 하는지, 한번 시작하면 얼마나 오래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하루에 총 몇 시간을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아이와 함께 실현 가능한 컴퓨터 사용 시간 계획표를 짜고 자명종 등을 이용하여 시간이 되면 중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잘 지키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주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며 격려를 해줍니다. 게임 때문에 그동안 소홀했던 친구를 만나게 하거나 취미활동이나 운동

을 하게끔 격려하고 게임하러 가지고 유혹하는 친구는 당분간 멀리 하도록 합니다. 모든 중독 치료가 마찬가지로 게임중독도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

가림신경정신과의원 ☎ 02) 425-2045

가림신경정신과의원

Garak Neuropsychiatric Clinic For The Elderly

강남 최초의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2003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및 따뜻한 정성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전문진료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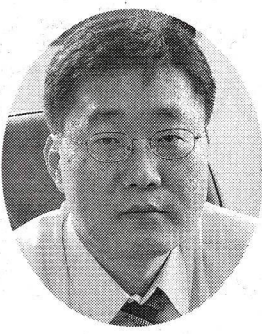
- ◆ 치매

치매란 과거에 “노망”이라고 부르던 노인성 질환입니다. 중년까지 잘 생활하다가 노년 이후가 되면 기억력이 저하 길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몰라보는 등 인지기능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거나 식사도 할 수 없게 되는 뇌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 ◆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기능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의식이 없어지거나 사지의 마비나 감각 상실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바깥출입을 못하고 식사나 위생 등 일상생활의 유지에 주변사람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 ◆ 노인성 우울증

노년기에 흔한 신경정신과적 질환의 하나로 우울감, 불안 초조, 불면 및 흥미상실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고통스러운 질환이다. 상담과 약물치료를 잘 치료가 되는 질환이나 본인이나 가족이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적절하게 치료되지 못하는 질환이기도 하다.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02)425-2045 fax : 02)423-1726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85



김장규 가림신경정신과원장

주요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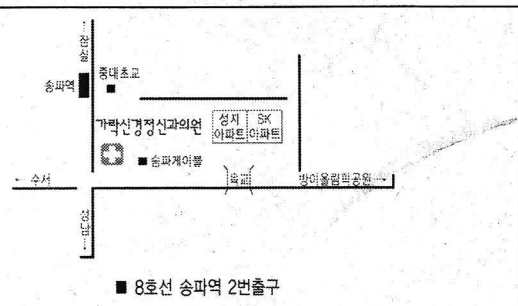
-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로원 정신과과장
-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 2002년 박사학위과정 수료(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년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진료시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약도



풍경소리

개에게 우유를 먹이는 방법

어떤 사람이 개에게 우유가 좋다는 말을 듣고 붙잡고 앉아 우유를 먹였습니다. 억지로 우유를 먹일 때마다 개는 싫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느날 개가 실수로 우유통을 넘어뜨려 바닥에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개가 다시 다가와 활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제야 개가 우유를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판단만으로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은 애정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베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 장용철/시인

내려놓게

조주스님으로부터 배움을 구하고자 한 제자가 왔습니다. 제자는 선물을 가져오지 않은 것이 미안해서 변명조로 조주스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무거운데 거기 내려놓게." "아무 것도 갖고 오지 않았는데 무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까?" "그럼 계속해서 들고 있겠네!"

그대의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문운정/수필가

인평이 풀릴 때

조카가 팽이 줄을 감는다. 금간 벽에 기대선 내 이마의 주름을 잡아 감는다. 마을을 가로질러 달리는 꽃샘바람 돌돌 묶어 감는다. 바람에 불어오는 소풍 냄새 그 냄새 잡고 따라 나온 개나리꽃 노란 빛 담겨 감는다. 아버지 눈 갈아엎는 소리 개울가 저만치 떨어진 개구리 울음 조그만 두 손으로 꼭꼭 감는다. 푸른 하늘과 구름 그림자 도도한 강물의 흐름 모두 감았다. 팽이를 풀린다. 산그늘 아래 언 땅 녹듯 눈물비친 사람과 그림음 세월의 무늬가 단숨에 풀어진다.

- 차창호/시인

아름다운 독선

그러니까 나의 아름다운 봄밤은 저수지가 말한다. 잠샘이 잔별들이 저수지로 내려와 물 뜨는 소리에 귀를 적셔보는 일 그 다음은, 별빛에 흥린 듯 흥린 듯 물뱀 한 마리가 물결 치고, 줄금 치고 일행시(一行詩) 한 줄처럼 나그네 길 가는 것 저것이, 몸이 구불구불 징한 것이 어떻게 날금 같은 직선을 만든다는 생각 그래서서 물금줄금 직선만 아직 내 것이라는 것 오 내 새끼, 아름다운 직선은 독선의 뱀새끼라는 것

- 서정준/시인

이달의 명상

마음의 거울에 비춰보라

마음이란 참으로 묘하여 자신이 비추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이 마음의 거울에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모든 것들이 항상 마음의 거울에 비추어 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 간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하여 조금만 내면으로 집중하여 마음의 거울을 관찰하여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많은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거울에 비추어,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의 원인을 알고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으면 행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오히려 지배되면 불행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표현되면 상대방을 자극하게 되고, 그 상대방 역시 어떤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에게 되돌려 줍니다. 이 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에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이 덧붙여지므로 부정적인 것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 자기 목숨이 다 하도록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뿌리도 우리 마음에 있고, 행복의 뿌리도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결코 남으로부터 혹은 운명이나 팔자로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를 알아가는 것이 곧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이요, 불교의 마음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집자 주)

예를 들어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이나 말로서

월정대성사, 함께하는 VISUAL 필교 ~반야심경편 제 39화~

옛날에 참새가족이 있었습니다.

아아..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 요즘은 먹어도 구하기 힘들구나.

엄마! 배고파. 벌레 잡아 줘.

에이! 새끼야 죽든지 말든지 도망가 버리자.

아이고! 배고픈 참새새끼 굶어죽네.

참새구이 해 먹으면 되겠군.

저런! 나쁜 어미참새 같으니라고.

그런 참새가 있는가 하면 다른 참새애기도 있어요.

자-집으로 가자. 앗! 왜 그래?

맞아! 못된 참새. 잡아서 구워 먹어야해.

안돼! 내 새끼를 해치지 마라.

헉! 놀래라.

내 새끼의 털갈 하나라도 다치게 하면 내가 혼내줄 테다!

에구! 이게 웬 참새냐. 히히히.

아아..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날지 못하겠구나.

허허.. 이런 맹랑한 참새 보게나.

정사유(正思惟)란 올바른 생각입니다. 정업(正業)이란 정견과 정사유에서 비롯된 올바른 행동으로 새끼를 지키려 했던 어미참새의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만 살자고 도망가버린 비정한 참새어미와 목숨을 버리고 새끼참새를 지키려 했던 어미참새애기를 예로 들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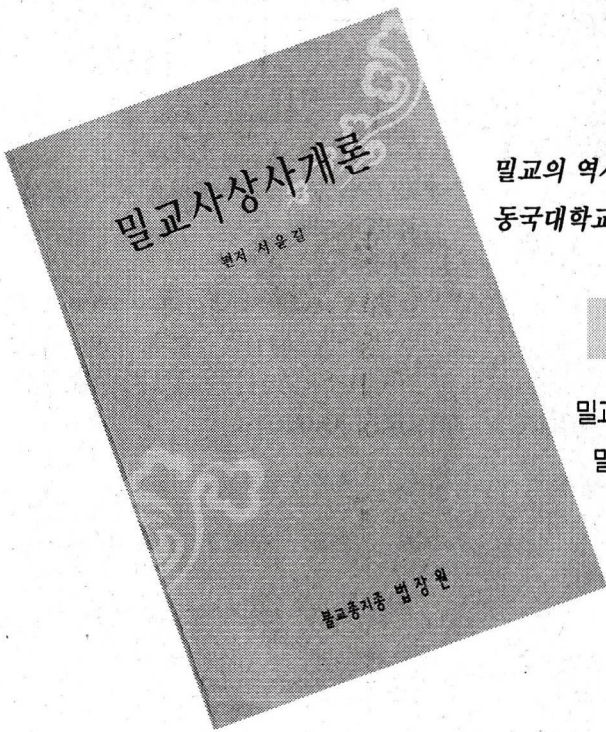
정견(正見)이라는 말은 진리를 바르게 본다, 올바르게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용감한 어미참새의 새끼를 지키려 했던 판단은 정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구...

아이고! 깜짝이야.

정수일홈피-<http://home.paran.com/octagonp>

『밀교사상사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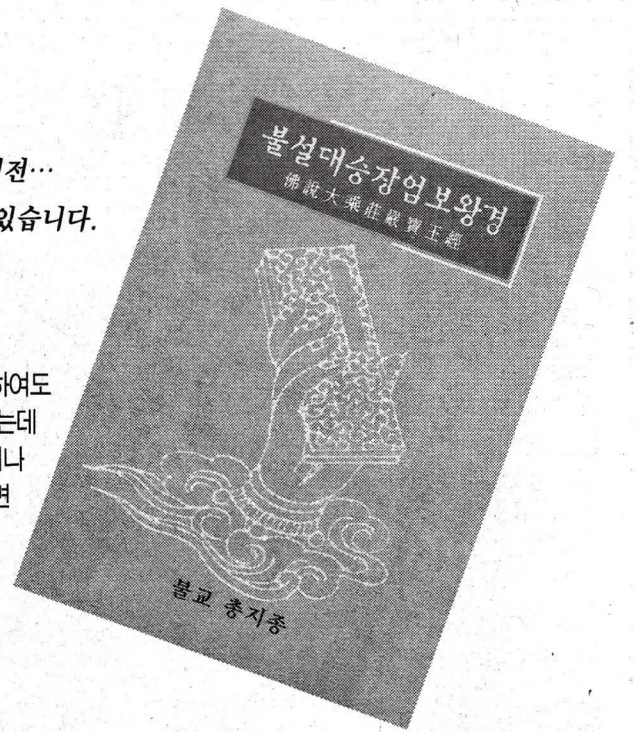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운길 교수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육자대명다라니 (육마니반메홍)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불교 총지종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세계속의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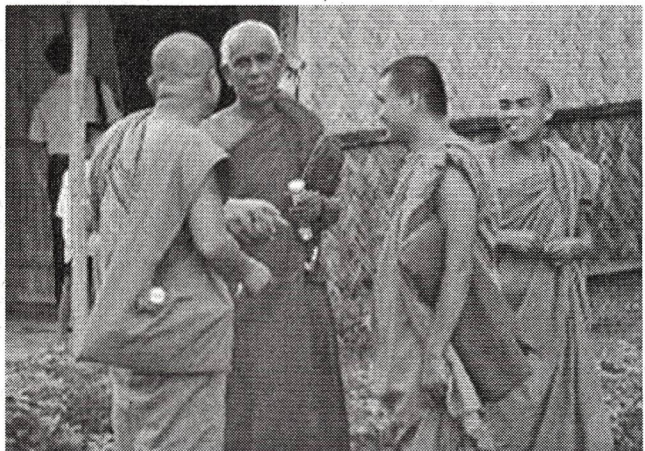
Buddhism in Bangladesh (방글라데시 불교)

인터넷을 통해 세계속의 불교가 어떻게 성장, 발전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2004년 방글라데시 인구는 약 1억2천5백만명으로 치타공, 치타공 힐 트랙, 코밀라, 폭스 바즈라와 바리살에 1백만명의 불교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불교는 점차적으로 통합되고 있지만 오스틱, 티베트-버어만, 드라비안, 아리아인의 종파가 존재하고 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티베트-버어만은 프유, 칸안, 테트의 3가지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크만 종족은 치타공 힐 트랙의 역사적인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칸안족은 치타공의 남동쪽에 살고 있는 락한 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브루나 불교로 알려져 있는 방글라데시 불교인들은 아리칸데스 시대부터 5000년동안 살고 있었던 고대인들로부터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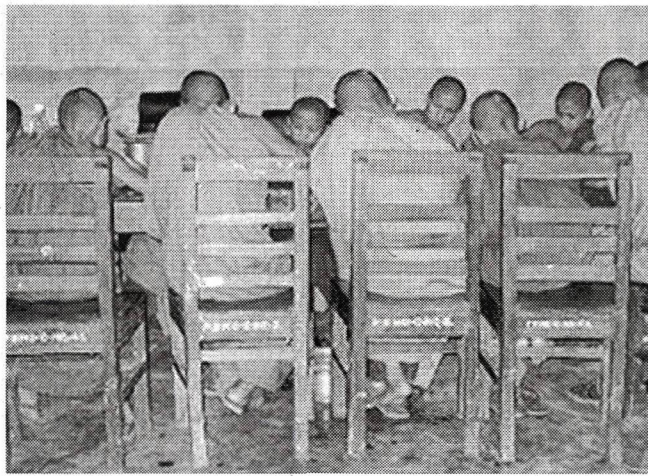
팔리 문학에 의하면 그들은 마즈히즈마데시 혹은 마드흐야데시로 알려진 아리아지방과 아르아비르타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처님은 BC 6세기 라타키의 남동쪽, 사타카니카의 남쪽, 투노의 브라흐만의 서쪽, 우시라트하 산의 북쪽에 위치한 마하살시의 아래지역인 카장갈의 동쪽의 중앙지역이나 마즈히마데시에서 불교를 설파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 이 지역들을 걸어서 다녔으며, 불자들은 부처님을 전지전능한 분으로 믿고 있었다.

또한 부처님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산을 베푸는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셨으며, 항상 모든 사물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계셨다. 부처님이 가시는 곳마다 불교는 성장하였다. 드한아와디 역사가는 '마하 마르트 무니로 알려진 부처님의 불상에서 현재의 부처님 불상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마우리스 콜리스는 "위대한 얼굴의 땅"이란 저서에서 이러한 부처님 상은 1784년 프하마 정복자에 의해서 만다리아나로



운반되었다고 한다.

양구타라니카야와 마지하마니카야에 의하면 부처님은 가장 갈라 와서 추종자들에게 두가지 설법을 하셨다. 그러나 부처님이 그의 생애동안 방글라데시로 와서 설법을 하셨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부처님의 생애동안 불교가 방글라데시로 불교의 영향력이 미쳤으며 부처님으로부터 설법을 들었던 한 두 스님이 벨갈로 와서 설교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불교가 마우리안 황제 아소카왕의 시기에 방글라데시에 전파되었다는 정확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에 의하면 파타리푸트라에서 3번의 불교집회가 결성된 후 소나과 우타라는 남동지역을 방문하여 불교를 전파하였다.

최근 인도에서 온 불교학자에 의하면 드하카지역 달라이 지역에 하나의 아소칸의 지주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상치에서 발견된 판드라바르드한 석물로 기록된 보타비 비문과 같은 한 두 개의 증거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증거로 미루어 보아 기원전 방글라데시에 불교가 전파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불교의 성장은 굽타왕조의 초기로 불교는 기원전에 방글라데시의 여러 곳에서 성장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 시기에는 대승불교가 신봉되었다.

파렌은 갠지강의 남쪽지역의 참타왕조에 대한 여정에서 대부분 대승불교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7세기에 인도 순례한 중국의 히우엔 트상스님은 벨갈의 북서쪽인 고우다 지역의 사상카왕은 불교를 혹독하게 박해했으며 방글라데시에는 대승불교가 전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7세기에서 12세기까지 대승교단은 방글라데시에서 황금기였다. 파하르, 자갈다, 비르람퍼, 파티겨라지역에서는 큰 불교사원이 세워졌으며, 스리 티판과 아티쉬, 켈라바트라 산티락 시트와 같은 불교학자가 방글라데시에서 나타났으며, 그들의 연구 논문은 대승불교와 탄트라주의를 포함하고 있다.

탄트라 불교는 부처님의 근본교리를 망각하고 있다. 그들은

불교의 기초교리를 상실하였으며 승가단체의 스님들도 5가지 금지종목인 물고기, 육식, 성교, 춤, 돈에 집착을 가지기도 하였다.

방글라데시에서 불교의 쇠퇴기를 보이자마자 많은 스님과 신도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15세기에는 왕가출신인 차카리타의 케약쿠는 버어마 모올메인을 방문하여 샤르브 스님으로부터 찬드라요티 브히쿠의 불명을 받고 스님의 계를 수지하였으며, 20년동안 버어마에 머물면서 경전을 연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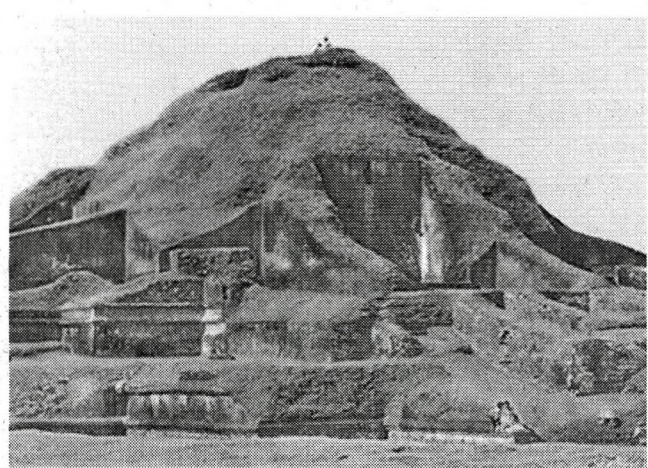
그는 치타공에 돌아와 시타쿤다 등지에서 아스람을 설립하였으며, 소승불교를 전파하였으나 방글라데시에서 전통적인 불교교단을 설립하는데 실패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소승불교에 대해 생소하게 생각하였다. 바르우아박사는 19세기동안 남 인도와 치타공, 티페라, 락삼, 코발라지역에는 소승불교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힌두교와 다양한 제사의식인 탄트라가 신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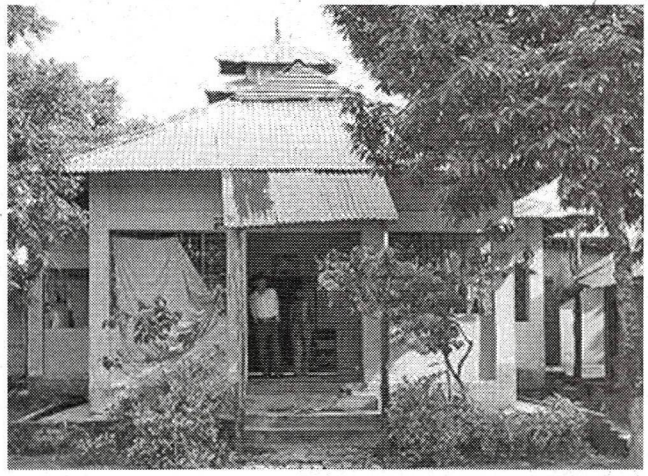
탄트라는 점차적으로 칼라차카라, 브자르야나, 사하야자나의 세가지로 분류되었다.

사하야자는 유명한 나트 켈트, 바울스, 아바두트에서 성장한 시바이트와 바이스나바이트와 같은 힌두교의 제사의식과 일맥상통한다.

결과적으로 불교 스님들은 파티목카하 규범을 지키지 않았으며, 신도들은 불교의 사상을 상실하였다. 그들은 두르카, 락스미, 마나사, 사라스와티, 카르티마와 많은 다른 신과 여신들을 신앙하기 시작하였으며, 불교 전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의식을 사용하였다.



많은 불자들은 그 당시 방글라데시에 존재한 타락한 수행의식을 바로잡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케인가 브히후 스님은 아라칸의 고대 수도인 무로함을 방문하여 큰 사원에 설치된 마하무니 불상을 보았으며, 그 불상을 아주 상세하게 본 뜬 모조품을 가지고 와서 아라칸의 조각가들 도움으로 마하무니 불상을



조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불교승가를 조직하는데 실패하였다.

판나사르 마하츠하비르 스님은 버어마로 가서 불교 조각을 공부하였으며, 고향으로 돌아와 방글라데시의 타락한 불교를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실패하여 그는 절망된 상태로 방글라데시에서 머물렀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불교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였다. 브히쿠 찬드라모한과 라드후 마테와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방글라데시의 불교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이러한 비판적인 상황에서도 아라칸의 사라마티 마하츠하비르는 인도를 순례하여 아라칸스와 산스크르트를, 팔리어에 능통한 라드후 마테라는 스님을 만나 상하라자 마하츠하비르 스님과 방글라데시에서 불교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여 그들과 함께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였다.

그 당시 차크마 왕조는 영국 정부의 신탁지역에 있었으며 통치자는 칸란티 여왕이었다.

그녀는 상하라자 사라마티 마하츠하비르 스님을 방글라데시에 초청하였다. 1864년에는 치타공으로 가서 수행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모시고 사람들에게 설교하였다. 특히 "마하무니 페어"의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며, 치타공의 새로운 일곱 스님들에게 계를 주었다.

이러한 행사는 소승불교가 전래된 이래 치타공에서 처음으로 역사적인 우파삼파라의 의식이 되었다.

아라칸의 고대왕들은 특별한 표시와 형태를 지닌 브히후 스를 신봉하기 시작하였다. 사라마티 마하츠하비르 스님은 또한 영국 정부로부터 위대한 인물로 존경을 받았다. 그는 "상하라자"로 널리 알려졌으며, 그의 추종자들은 "상하라자 나카야"로 널리 알려진 소승불교 기구를 설립하였다.

(http://www.buddhanet.net/e-learning/buddhistworld/bangladesh.htm) 번역 : 김용주/총지종보사



정보 다이제스트

불교신자 대폭 증가했다

개신교계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3명 중 1명이 불자이며, 지난 6년동안 불교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대표 이동원 목사, 이하 한미준)이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지난해 7~10월 만 18세 이상 제주를 제외한 전국 남녀 6,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란 제목의 여론조사(표본오차 ±1.23%, 95%신뢰)를 통해 밝혀졌다. 한미준이 지난 1월 25일 서울 은누리 교회에서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종교별 인구는 불교가 26.7%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21.6%), 천주교(8.2%), 기타(0.6%) 순이었다. 불교는 지난 1998년 한미준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수치(23.5%)보다 3.2% 증가,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160여만명에 달하는 수다. 개신교와 천주교는 각각 0.9%와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과거 불교신자였던 사람이 현재도 불교를 종교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80.3%에 달해, 천주교

(63.9%)와 개신교(61.8%) 유지율보다 높았다.

공설 화장장·납골시설 신도시 개발 때 의무화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 공설 화장장과 납골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도로나 철도변에도 묘지나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장사제도개선 추진위원회(위원장 송재성 복지부차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장사제도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공회회, 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추진위 방안에 따르면 묘지와 납골묘가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20가구 이상 인가 밀집지역이나 학교, 공공시설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토록 돼 있지만 이중 도로와 철도, 하천 주변을 설치 제외지역에서 빼기로 했다. 화장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 용기없이 땅에 묻거나 뿌리는 산골(散骨)수요 증가에 따라 산골방법 및 산골지역을 정화되 공공시설이나 학교,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이나 상수원 보호지역 등 지자체장이 정한 지역 등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자치단체장은 무연고, 불법 분묘에 대해 안장 시신과 유골을 의무적으로 화장해 일정기간 납골하거나 이장토록 했다.

심장병 막으려면 이 잘 뒤야

치솔질을 잘 해 이몸이 건강하면 뇌졸중과 심장마비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모이스 데스바리에 박사는 미국심장학회(AHA) 학술지 '순환'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잇몸질환인 치주염이 있는 사람은 뇌졸중과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힌 것으로 영국의 BBC인터넷 판이 8일 보도했다. 데스바리에 박사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심장마비) 병력이 없는 657명을 대상으로 치주염을 일으키는 구강 내 박테리아를 검사하는 동시에 심장에서 혈액을 뇌로 공급하는 동맥인 경동맥 두께를 측정한다. 결과 치주염 박테리아가 많을수록 경동맥이 두꺼워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경동맥 두께 측정은 동맥경화 진단에 이용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유독 치주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만이 동맥경화와 연관이 있고 구강 안에 있는 다른 종류의 박테리아는 연관이 없다는 것이라고 데스바리에 박사는 말했다.

"사람의 뇌 25세까지 자란다"

사람의 두뇌는 25세가 돼야 성숙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워싱턴 포스트의 지난 1일자 보도다. 인간은 18세를 전후해 몸

과 머리가 완전히 성숙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대부분 국가를 이를 근거로 이 연령대부터 성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국립보건연구소(NIH)가 4~26세 2000명의 뇌를 연구한 결과 25세까지는 뇌에서 위험한 행동을 억제하는 부위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주도한 소아심리학자 제이 기드는 "18세 때 육체와 뇌의 성숙도가 최고 수준이란 통념이 깨지고, 오히려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PC장기 사용시 휴식하지 않으면 사망 가능"

대한의사협회는 8일 PC방 등에 컴퓨터의 장기 사용시 적당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부착토록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PC방에서 컴퓨터 장기사용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경고 문구 부착을 의무화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법 개정에 적극 나서길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면 혈관이 막혀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PC방 컴퓨터에 대한 경고 문구 부착 의무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컴퓨터 장시간 사용시 중간 중간에 일어서서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인성된 사회와 기쁨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노인복지사업

- 역삼 노인복지센터 운영
- 주간보호 사업
-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낮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과 노인들이 경제, 신체,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 재가복지 사업
- 지역의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을 발굴하고 경제, 정서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
- 은빛축제 :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미당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알선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납골당 건립 추진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회 원

일반회원 - 월 5천원(1구좌) 이상 친조회원 - 일정금액 후원
단체회원 - 단체명의로 월 5만원 이상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

후원금 납입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 지로번호 : 7668610
 -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인터뷰

총지중보 총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의강(김현우) 이사장

총립학교 건학이념 추구, 교사 자질향상과 인재 양성



의강 동해중학교 이사장

▶수 십년동안 중생교화를 위해 일선에서 교화하시다가 올해 일선에서 퇴임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생활에 대해 말씀해주시오

일선사원에서 보살님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생활한지가 벌써 수십년이 흘러 퇴임하게 되니 세월이 너무 빠르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일선에서 물러나 자신을 정리하며, 그동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운동과 밀고관련 원고를 쓰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해중학교는 최근에 외부 전문인으로 구성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외부감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신지 말씀해주시오

중단적 차원에서 이사회에 감사가 있으며, 감사의 고유한 임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착적인 기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부감사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면 외부인을 감사로 선임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는 지적보다 개선점과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의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부 감사원의 질적향상을 통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중학교는 올해 교장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을 새로운 분으로 모시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해중학교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해중학교를 인수한 이후 최근까지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교장으로 선임하셨습니다. 그러나 학교내부에서 30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많으며, 교장, 교감으로서 자질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학교 내부 선생님들 중에서 교장, 교감으로 승진시키므로써 선생님들이 발전의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자아발전을 위해 노력하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자질이 향상되면 학교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해중학교는 총립학교이기 때문에 신앙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선생님들이 부인들과 함께 자성일 불공에 참석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많은 선생님들이 정각사에 참석하고 있으며 부인들도 만다라 합창단에 가입하고 있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해중학교는 총지중보의 유일한 총립학교로써 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해중학교 일선교사들 및 재단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립학교로써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너와 나라는 분별심을 버리고 선생님과 재단이 서로 협력하여 학교발전에 매진할 때 반드시 학교는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동해중학교는 예전에 아주 훌륭한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환경적인 요인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퇴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교사들의 질적인 저하와 재단의 관심과 관리가 소홀함에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한 조직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며, 이러한 인재들이 애중심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할 때 조직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우수한 교사들을 영입하고, 재단은 이러한 교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학교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동해중학교가 유명했던 원인은 우수한 교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사소한 이익이나 사심, 편견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교사들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단도 교사들을 영입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며, 훌륭한 교사들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은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통해 훌륭한 교사들을 영입하도록 반드시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훌륭한 분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생각입니다.

▶중단에서는 동해중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종교연수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립학교로써 건학이념을 살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종교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종교연수가 중단적으로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자체적인 교육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별적 종교연수를 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단차원에서 훌륭한 프로그램



으로 종교연수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저도 또한 종교연수에 대한 필요성을 예전부터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도 그에 대한 일환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학동안 선생님들의 연수 프로그램에 하루정도 연수원에 가까운 사원에서 기초교리 및 수행법을 체득하는 시간을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선생님들에게 거부반응이 없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좀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동해중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 교장선생님에게 일임하겠지만 중요한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립학교로써 위상강화를 위해 이사장의 권한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오

학교운영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95%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지만 대지매입과 건물신축, 증축, 교사임용, 환경개선은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일임하겠지만 동해중학교는 합법적으로 총지중보 총립 관음학사이기 때문에 비록 국가예산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재단에서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운영에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와 학사운영에 대해 학교장과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활동비 및 관공비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 기관장들과 만나 학교발전을 위

자질향상이 곧 학교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최근 기업에서도 시행되고 있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를 교장, 교감과 학생, 학부모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즉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들에 대한 실력과 성실성, 지도력 등을 평가한 자료를 통해 선생님들에 대한 보직인사를 단행할 생각입니다.

▶너무 성급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현재 교장선생님도 3년 후면 정년퇴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발전을 위해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의 선임방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동해중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내부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교장, 교감이 선임되면 선생님들은 차후 승진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현시대에 합당한 강의 방법이라면, 학생과 학부모와의 친밀감있는 관계형성으로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학생들은 학업에 열중하여 결국에는 학교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체에서나 마찬가지로 재단 내부 구성원의 인적구성원이 생동감있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며 활동하는데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동해중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노력이 밑받침될 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훌륭한 지도력으로 학생들은 21세기 미래를 창조하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해중학교 운영하는데 있어 교장선생님에게 일임하겠지만 중요한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권한강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동해중학교 선생님들의 보직인사는 학교운영에 있어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일 것입니다. 앞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인사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시행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 선생님들의 보직인사는 선생님들의 사기양양에 중요한 사안임은 틀림없습니다. 최근에 새로 부임한 교장선생님과 보직인사를 원만히 단행하여 앞으로 선생님들간의 화합이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인 수업방식과 능력개발로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학교운영은 재단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상호유기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대관계강화를 위해 동해중학교내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해중학교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여 야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일요일에는 지역주민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귀중한 자녀들이 학교에서 생활하고, 학교의 역량에 따라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지역과 학교는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동해중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이 가능할 때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학교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고, 학교발전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지역민들이 수강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장애우와 노인들을 위한 행사마련, 학교 품물패의 정기적인 연주 공연 등 다양한 방안을 교장선생님과 함께 모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단 및 동해중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해중학교는 총지중보 총립학교로써의 위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의 발전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단과 학부모, 선생님과 학생이 혼연일체가 되어 화합하고 단결할 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재단과 학교는 경제적인 원리와 이론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래의 일꾼을 양성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이란 점을 상기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긍정적인 자세로 발전을 위해 격려하는 풍토를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사의 자질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훌륭한 교사들을 채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점에 대해 중단과 재단은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美 1인1의원

여성(부인과) 클리닉

- 월 경 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 신 병 : 불임, 임신오저(임덧), 임신중독증 등...
- 산 후 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좌약 요법(자경단, 요실금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성美 1인1의원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가족 클리닉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 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여성美 1인1의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육아TV “전문상담”

한남대교

신사역3번출구

신사역1번출구

30M 지하점점거리

20M 1분거리

STARBUCKS

대성미안의원

강남역

여성美 1인1의원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전화상담 02)545-0072

Fax 02)545-2191

생혈액분석기, 자동발광진단기, 초음파, 온열전기침, 저주파치료기, 좌훈욕기

교계소식

“열반의 순간 부처님의 길로” 중앙승가대 학인 “호스피스교육”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 56명이 3월 18일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실시하는 호스피스(회장 이규완)의 자원봉사 교육을 수강하였다.

첫 시간은 혈액종양내과 김열홍 교수의 ‘암의 최신치료법’ 강의. 이들은 “실제 임종 직전의 신도들을 대하는데 적절한 대처방법, 늘어나는 노인들이 행복한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스님의 역할, 이론 뿐 아니라 임상에서 직접 말기 환자들을 접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하는 방법들을 배웠다.

학인들이 고려대 병원 호스피스 과정을 수강하게 된 것은 지난해 중앙승가대를 졸업한 지현 스님의 권유 덕분이다. 지현 스님은 이미 9년째 이곳에서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이웃종교인 천주교와 기독교의 경우, 호스피스 봉사를 통해 임종직전의 환자와 그 가족들까지 개종시키는 적극적인 선교가 활성화 되어 있다. 그러나 불교는 이런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과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왔다. 불자는 물론 비종교인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말씀에 감화되어 진정한 불자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스님들의 호스피스 봉사를 간절히 바라는 임종환자들이 수없이 많은 현실에서 이번 교육이 수에 필요한 정규 교과과정인 아닌 강의를 자발적으로 수강 한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고려대 안암병원 인공신장실 김려원 수간호사는 “1995년 호스피스회가 생기고 타고성 성직자들의 교육수강은 꾸준했지만, 이번처럼 스님들이 단체로 호스피스 교육을 받기는 처음”이라며 활짝 웃었다. 병원관계자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호스피스 활동에 대한 스님·불자들의 관심과 활동이 늘었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호스피스 교육은 ‘죽음의 의학적 경과’ ‘호스피스 대상자와 의사소통’ ‘호스피스환자의 통증관리’ ‘심리간호’ ‘에이즈란 무엇인가’ ‘삶과 죽음의 의미’ ‘사별 가족관리’ 등 20여 주제로 하루 4시간 씩, 총 6주간 강의를 이수해야 한다. 아직 자격증 제도는 없으며 일정 시간 자원봉사를 마치면 고려대병원 호스피스회가 지급하는 ‘수료증’이 주어진다.

템플스테이 5명중 1명꼴 기독교 신자

범종교적 자기성찰, 문화체험행사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템플스테이 참가자 10명 중 7명이 종교적 동기보다는 자기성찰이나 새로운 문화체험, 휴식 등을 위해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불교조계종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외국인 3천2백7명을 포함해 지난해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3만6천9백2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참여자 동기로는 자기성찰(35%), 불교에 대한 관심(14%), 산사에서 휴식(12%) 등의 순이었다. 또 참가자의 종교는 불교가 37%로 가장 많았지만 개신교(10%), 천주교(9%)도 적지 않았으며 무종교도 38%에 달했다. 이에 따라 사업단은 올해 템플스테이를 지난해보다 8개 늘어난 44개 사찰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선정된 사찰을 발표했다.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는 송광사 화엄사 수덕사 등 대찰과 탐조(探鳥) 여행지로 유명한 서산 부석사, 영어 법사가 있는 대진 자광사 등은 물론 서울 봉은사와 길상사, 파주 보광사, 남원 실

태고종, 동방불교대학원대학 첫 입학식

정상욱 초대총장임명, 210명등록

태고종립 동방대학원대학교 제1회 입학식 및 초대 정상욱 총장 취임식이 3월 4일 대학내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입학 및 총장 취임식에는 봉선사 조실 월운스님, 조계종 원로 도운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종회의장 인공스님, 부원장 보경스님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사장 운산스님은 치사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입학한 신입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자리아타의 대승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문화 계승을 통해

21세기 세계화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욱 총장은 취임식사를 통해 “동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학과전공의 전문화로 전통 학예를 이시대에 맞도록 재조명하고 새로운 체계로 정립해 국가 번영에 기여하는 대학원대학이 되도록 하겠다.”며 “2006년 박사과정을 신설하고, 미래 예측학과 자연치료학과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5학년도 동방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과정 30여명, 연구과정 27명, 문화교육과정 210명이 등록했다.

조계종, 국고보조금 횡령 근절

총무부장 무관스님, 불교단체 면담

조계종총무원이 문화재보수비 명목으로 사찰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횡령 등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총무부장 무관스님은 24일 중앙신도회, 대한불교청년회, 불교환경연대 등 불교단체와의 면담에서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하라고 차·과장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히고 “총무원장 스님도 이 문제에 대해 부장스님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다”고 말했다.

불교단체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이날

면담에서 중앙신도회 최연 사무총장과 대한불교청년회 전준호 사무총장 등은 “화엄사의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전 범여사 재무 석호스님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한 미진계, 북한산 관동도로 반대운동과 관련한 보상비 수령 등은 불교의 도덕성과 사회적 권위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며, 총무원장 스님의 승복 진작 의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관스님은 북한산 관동도로 관련 보상금 수령에 대해 “공의를 거처서 풀어나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무관스님은 이어 “(사찰) 안에 들어온 돈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계속 회계를 통한 승복 진작을 강조했다. 한편 순천지청은 화엄사에 문화재보수비로 지급된 국고보조금 30억원 중 13억3천여만원에 대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봉은사에서 장귀룡 2주기 천도제

죽은 이의 영혼 극락왕생발원

홍공의 가수 겸 영화배우 장귀룡(張國榮)이 48년간의 삶을 투신 자살로 마감한 지 2년을 맞아 한국 팬들이 그의 명복을 비는 마지막 천도제(薦度齋)를 열었다.

봉은사와 장귀룡 팬클럽(cafe.daum.net/leslie)에 따르면 이들은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에서 장귀룡의 2주기 천도제를 치르고, 고인의 생전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추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죽은 이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치르는 불교 의식인 천도제는 사망 후 1주일 간격으로 49제까지 치른 뒤 100일·1년·2년 되는 때에 열도록 돼 있어 이번 2주기 천도제는 도합 10차례

중 마지막이다. 장귀룡 팬클럽은 제작된 6월 영화 수입사의 도움으로 경기 일산 여래사에서 49제를 지낸 후 내년 이맘때도 봉은사에서 천도제를 연 바 있다.

팬클럽 운영자 임국화(40·여)씨는 “수백명이 참석하는 큰 행사라 돈도 많이 들고 장소도 마땅치 않은 차에 봉은사에서 ‘정성으로 함께 제사를 모시고 싶다’며 후원 의사를 밝혀 재작년부터 행사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제 2주기간 다음달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 극장에서 유일하게 국내에 남은 극장관 필름으로 장씨의 출연작 ‘해피 투게더(Happy Together)’의 시사회도 열 예정이다

아함경 이야기

부처님의 성도(1)



황령정사

에 앉아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그것이 불교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체력을 회복하신 다음 네 란자라강 근처의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기까지는 고행을 멈추고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로병사의 굴레를 벗어나고 삶의 근본적인 고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를 사유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7일째 되던 날 새벽 먼동이 틀 때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경전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초저녁에 숙명통을 얻어 과거의 일을 꿰뚫어보고 한 밤중에 천안통을 얻어 미래

음을 누리고 계셨다고 했는데 그 즐거움은 아마 필설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갈구하던 진리가 포갠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노병사의 고뇌를 초월하여 더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즐기는 그런 마음은 말하자면 지혜의 즐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범부들도 사소한 것이라도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았을 때나 자기 혼자만의 방법을 터득했을 때, 아니면 오랫동안 마음 속에 숙제로 남아 있던 것을 지혜로써 맑끔히 해결했을 때 가지게 되는 기쁨을 생각해 보면 부처님의 기쁨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짐작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우주의 대진리를 깨치고 생사를 초월하는 원리를 터득하신 그 즐거움이 어찌 범부들의 그것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 범부들처럼 기뻐서 날뛰지 않고 조용히 그 즐거움을 누리시면서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음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는 아마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음미하며 혹시 오류가 있지는

번뇌와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난 바른 깨달음

깨달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직관의 세계

의 일을 꿰뚫어보고 새벽녘에 누진통을 얻어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되셨던 것입니다. 이 때의 감동을 경전에서는 천지가 진동하면서 하늘에는 꽃비가 내렸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것은 엄숙하고도 장엄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껏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고 살아 있는 인간으로서 생사를 초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순간에 번뇌와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바로 보리수나무를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7일 동안 그 나무 밑에서 당신의 깨달음을 음미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울장이나 자살경 등에 보면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의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 대체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세존께서는 우루벨라 마을의 네 란자라 강변에 있는 보리수 아래에 계셨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신 세존께서는 결과부족한 채 7일 동안 한 자세로 삼매에 잠겨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고 계셨다.

깨달음을 얻으신 뒤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앉아서 7일 동안이나 해탈의 즐거

않은가 다시 검토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은 언어로 초월한 직관에 의한 깨달음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전에서는 그것을 ‘모든 법이 모습을 드러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말로서는 도저히 나타낼 수 없는 직관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태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그것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말로 표현하지만 끝이 없지만 마음에 와 닿는 한 생각으로 모든 사실이 파악되고 그것의 전모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도 아마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느끼는 감흥과 같았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저 느끼고 알뿐이지 그것을 도저히 말로는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부처님께에도 모든 진리가 그렇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언어와 논리를 초월한 글자 그대로 모든 진리가 그 모습을 나타내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명제한의원

명제한의원은 첨단 의료기기와 안락한 진료실, 최상의 진료서비스로 여러분 가정의 주치의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전문클리닉
- 비만 클리닉
 - 성장 클리닉
 - 당뇨 클리닉
 - 비염 클리닉
 - 생리통 클리닉
 - 구안와사 클리닉
 - 디스크 클리닉
 - 오십견 클리닉
 - 감기예방 클리닉
 - 중풍·치매 클리닉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10:00 ~ 오후 6:00
토 요 일	: 오전 10:00 ~ 오후 4:00
점심시간	: 오후 1:00 ~ 오후 2:00
공 휴 일	: 예약진료합니다. 일요일 : 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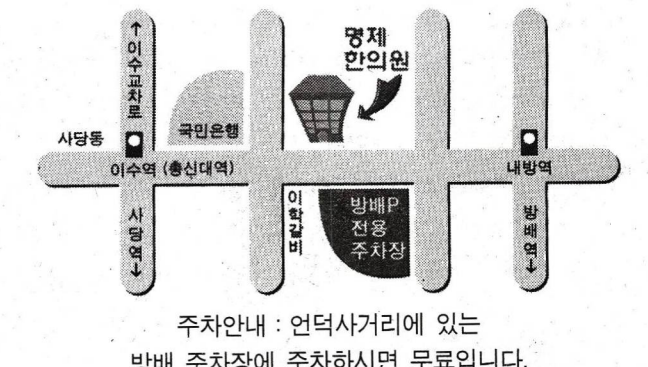
명제한의원

원장 김 준 영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67-29번지

한일빌딩 2층

전화 : (02)595-1075(한방치료)



아제아제바라아제

친절

불광동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파주 보광사행 33번 버스는 광탄면의 한가한 농촌마을을 오가는 유일한 노선버스입니다. 45분에 한 번씩 운행하는 이 버스는 자가운전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과 이 지역의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 그리고 휴가를 받아 들고 나는 군인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오랜 동안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면 대개 서로 낯이 익습니다.

저도 서울 살림을 접고 이곳 한가한 교외로 이사한지 3년이나 되다보니 어느 정거장에, 어느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인지 알아보고 인사를 나누는 분들이 몇 분 생겼습니다.

33번 버스 운전대를 처음 잡은 기사들은 처음에는 매우 낯설어 합니다. 그리고 승객들의 이런저런 질문에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쯤 지나면 기사들의 성격에 따라 툭툭 달라집니다. 승객들과 즐겁게 인사를 나누고 이런 저런 세상은 얘기를 해가면서 편안하게 운행하는 기사와 묵언하듯 말문을 닫고 운전하는 일에만 충실한 기사로 나뉩니다.

여러 운전기사들 중에서 무척 친절하고 명랑한 두 명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벌써 비슷비슷하게 생긴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노동자들도 금방 알아보고 어디까지 가는 지 압니다. 그 나라 말로 인사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시내로 통학하는 어린이들이 병아리처럼 재잘대면서 차에 오를 때에 늘 줄거운 인사를 합니다. 어떤 녀석들이 1천원 지백을 내고 4백원 버스를 제한 6백원을 돌려받으려고 하면, '다음부터 잔돈으로 내지 않으면 거스름돈 안 줘' 하면서



한결같이 친절하고, 한결같이 자비스런 미소짓는 버스운전기사

그래도 가장 자주 손님들을 대하는 사람은 버스기사입니다. 이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는 모두 다섯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사 한 두 명은 버스노선에 정을 들이지 못하고 곧잘 바뀌곤 합니다만 듣직하게 정을 붙이고 즐겁게 운행하는 불박이 기사들도 있습니다.

이용 승객들이 주로 노인 층에 끼는 분들이라서 버스를 내리고 탈 때에 느긋하게 기다려 주고, 버스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정류장으로 급히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도중에 차를 세워서 태워주기도 해야 합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어느 정류장의 구멍가게에 들려 맡겨놓은 물건을 찾아 다시 타기도 하고, 우리말을 잘 못 알아듣는 초보 외국인노동자들에게는 힘들게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까지 버스요금 얼마인지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어떤 초보 손님들은 1만 원 권 밖에 없어서 다른 손님들이 탈 때 내는 돈이 걸히기 까지 기다렸다가 거스름돈을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농촌마을을 지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친절한 기사가 운전하는 버스를 만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도시 시내버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시는 모두가 서로에게 낯선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더욱 그럴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한결같이 친절하고, 한결같이 자비스런 미소를 짓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이상으로 삼는 '보살'의 모습은 '한결같음'이 기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분 좋게 친절한 버스기사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합니다.

종교지도자들, 독도 일본규탄 한 목소리

7대 종교대표자, 일본의 독도 주권침해에 항의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주권침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종교지도자들이 독도에 모여 '일본 규탄'의 한목소리를 냈다.

7대 종교 대표자 협의체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회장 불교조계종 법장 총무원장)는 26일 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주권침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문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던 7대 종교 대표자들

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헬기편으로 독도로 이동, 순교자비에 묵념한 뒤 정부의 적극 대응과 일본의 사죄를 보다 강경한 어조로 재차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총무부장 무관 스님을 비롯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성규 대표회장, 천주교 주교회의 사무처장 조규만 신부, 원불교 이해정 교정원장, 성군관 최근덕 관장, 천도교 김동환 교령 대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

“비구니 군법사 파송 적극 추진”

조계종 포교원 군종특별교구 후속조치 '준비중'

앞으로 군중에 '비구니 군법사'가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군종특별교구법>제정에 따라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관계 법령의 제정 및 정비와 함께 지금까지 활동해온 군불교위원회의 조직을 확대 개편을 통해 교구 조직을 갖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여성의 군내 활동에 따라 병영 내 군불교를 담당할 비구니 군법사 파송도 함께 추진된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일관스님은 25일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에 출연해 "비구니스님의 군종파송은 비구니스님들 사이에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여사관생도의 증가 등 여성의 군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비구니스님이 군법사로 가면 군포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관스님은 "이미 중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정식으로 비구니 스님이 군승으로 파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비구니스님에게는 성역과도 같았던 군승의 문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포교부장 일관스님은 또 부족한 군승법사의 증원을 위해 "스님 중에 군승요원을 분사별로 활동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군종장교 중 군승법사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종교구의 설치와 관련한 국방부와 협의에 대해서는 "군종교구장이 선출되면 종단에서 본격적으로 나서서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군불교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군포교기금을 확충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1사찰 1군법당 현재 250개 사찰이 자매결연을 통해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군포교기금 마련을 위해 종단의 군포교 기금 확대 △군종특별교구 내에서 특별분담금사찰 지정 △후원회 강화 등의 군포교 기금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제정된 <군종교구특별법>에 따르면 교구본사는 국방부 원광사에 두고, 교구장은 교구 상임위원회에서 승납 25세 속납 45이상 70세 이하의 비구니 스님 중에서 선출해 총무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협의회는 "일본 시마네 현은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가결하고,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는 외신기자회견을 통해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분명한 일본의 영토'라는 발언을 했는데,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어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것은 일본의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부활 음모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라며 "최근에는 역사교과서를 더욱 노골적으로 왜곡하는 등 반역사적, 반평화적, 반양심적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은 인류, 일본 내 양심적인 국민과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연대해 일본정부의 잘못을 시정하는 데 나설 것 ▲대한민국 내 종교인과 국민들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음모를 경계하고 전국민적인 역사바로세우기 활동에 나설 것 ▲일본정부는 침략전쟁과 위안부 강제 동원 등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그 피해 민간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상을 실시할 것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아시아 국가 피해민들은 국제연합과 연대해 국제법정에서 일본의 역사적 잘못을 심판하는 데 나설 것 ▲일본정부는 진실을 왜곡하여 우호선린 관계를 위협하는 역사교과서 왜곡을 즉각 중단할 것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주권침해, 역사교과서 왜곡 등 일본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파라미타부산청소년협회 창립 총회

청소년상담실, 문화탐방등 사업확정

(사)파라미타 부산 청소년협회(회장 김석조)는 3월 23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창립 9주년 기념 총회를 개최하고 폭넓은 청소년 포교를 위한 2005년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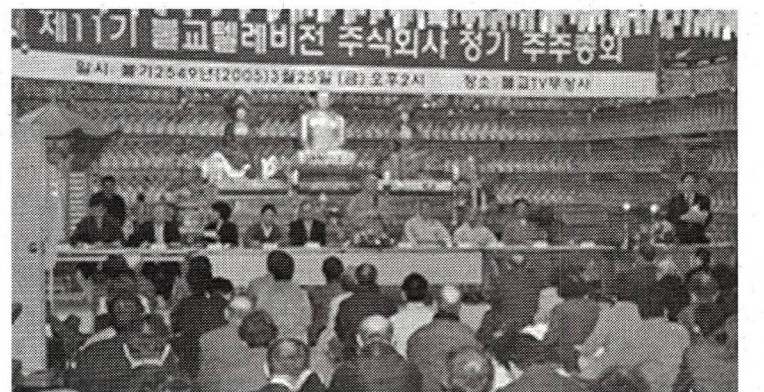
여여선원 선원장 정여 스님,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등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정여 스님, 수불 스님을 부총재로 추대하고 운영위원장에 임만호, 부운영위원장 김수현, 총무 이기표 등 임원진을 개편하고 고등부 지회 회장으로 전

화산여교 교장 박병택 씨를 임명했다.

또한 2005년 사업으로는 '파라미타 연수실' '청소년 연수실' '청소년 상담실' '자원봉사실' 등으로 크게 나눠 지도교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학생들 참여 봉사나 문화탐방, 시각장애인 위한 자원봉사 등을 확정했다. 특히 해동중학교를 중심으로 파라미타 홍보 신문을 제작, 부산 시내 청소년들이 파라미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폭넓게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갈 방침이다

불교TV 제 11기 주주총회 개최

영업보고, 이사선임 등 안건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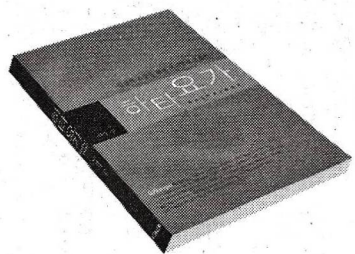
불교TV(회장 성우)는 지난 3월 25일 총지종 우승 통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봉천동 불교TV 1층 무상사 법당에서 제11기 불교TV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제11기(2004. 1. 1~12. 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임원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이 처리됐다.

이날, 3월25일과 5월10일 각각 임기가 만료되는 효암 진각종 통리원장과 이수덕 前 불교TV사장이 이사로 다시 선임됐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여래 요가 신서들

하타요가 hathayoga



요가를 전공하고 직접 지도하고 있는 요가박사가 쓴 정통요가수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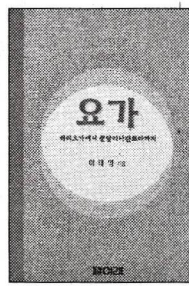
현재 국내 요가 인구는 줄잡아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슈퍼스타들(마돈나, 줄리아 로버츠, 케네스 웰트로 등등)의 예찬론까지 가세하면서 폭발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요가수련이 하타 요가에 대한 것들이다.

하타 요가의 효과는 바로 이 현실에서 실증된다. 육체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며, 정신은 안정을 찾고 행복해진다. 만약 요가 수행에 깊이 몰입할 수만 있으면 종교적인 공극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비록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해도 건강만은 남는다.

대부분의 종교와 학문에서 요가를 거부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요가가 육체나 정신에 미치는 효과는 현대 의학에서 이미 증명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은 심신의 건강을 위해 요가를 한다. 또한 의학·체육학·심리학·음악·종교 등 각 전문 분야에서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요가를 두루 응용하고 있다.

이태영지음/신국판/176쪽/값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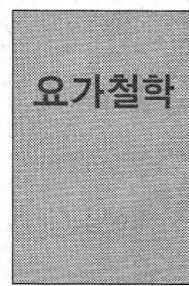
요가 - 하타요가에서 룬달리나트라까지 -



요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요가행자가 쓴 책. 한국 요가연수원 원장으로 10여 년간 현장에서 요가를 지도하고 실천해온 저자가 이론과 실천을 바탕으로 지은 책으로, 요가 전반에 관한 이론서

이태영 지음/신국판/1368쪽/값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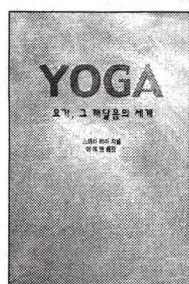
요가철학



이 책은 고전 요가 체계의 근본 경전 『요가수트라』와 주석서 『요가바샤』에 근거하여 요가 수행 체계와 이론을 쉽고도 간결하게 설명해 놓았다. 고전 요가사상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숙독해야 할 책이다.

이태영 지음/신국판 240쪽/값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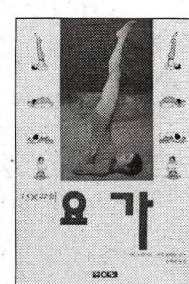
YOGA - 요가, 그 깨달음의 세계 -



이 책은 단순한 사상적 이론을 강조한 학자의 글이 아니라 높은 경지에 이른 수행자가 깨달음을 희망하는 요가 수행자들을 위해 강연한 글들로, 내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

스외미 리마 지음/이태영 옮김/신국판 320쪽/값 8,000원

15×22의 요가



매우 간략하고도 요점을 찌르는 요가의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어 요가를 처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요가 체위에 어느 정도 숙달된 이들도 옆에 두고 참고삼을 만한 내용이다.

사토노리미츠·미키 용하임 공저/김재현역/1204쪽/14,500원

창조, 협동, 경애로 크고 넓은 꿈 실현

총지중 종립 동해중학교 입학식



“저희 신입생은 오늘부터 영예로운 동해중학교 학생으로서 교칙을 잘 지키고,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 학업에 열중하고, 새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 학생생활지표를 잘 실천하여 동해중학교의 명예와 전통을 더욱 빛낼 것을 선서합니다.” 총지중 종립 동해중학교는 지난 3월 4

일 대운동장에서 의강 이사장, 총동창회장, 학부모회장 등 내외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267명을 새로 맞이하는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개회, 국민의례, 입학허가선언, 교장축사, 이사장 기념사, 교가제창순으로 진행되었다.

의강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청소년으로서 의젓하고 능률한 기상을 가꾸고, 보다 차원 높은 학문을 배우고 익히면서 동해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훌륭한 전통과 높은 기상을 이어가기 위해 자신의 능력과 특기를 최대한 발휘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박수현 학교장은 축사에서 “올바른 사고를 가진 사람, 서로 믿고 돕는 사람, 자기 책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는 터라 인천에서 가장 큰 법무법인 로지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특히 매년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을 배출하는 현 시점에서 이들은 실력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관으로서 장래가 유망되는 인물로 기대된다.

한편 총지사 박상영보살과 시법사 노진숙보살은 총지중에서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으로 “부처님의 공덕으로 자녀들이 소원하는 것을 성취하여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뿐이며, 앞으로 자녀들이 건강하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서원한다.”고 말하였다.

이완형 청주지법 판사, 문성운 법무법인 로지스

총지중교도 자녀들 법조계 큰 인물로 성장예고

총지사 교도 이상철각자와 박상영보살의 장남 이완형씨가 4월 1일자로 청주지법 판사, 시법사교도 노진숙보살 장남 문성운씨가 인천에서 가장 큰 법무법인 로지스에 입문하여 법조계에 새로운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이완형씨는 1992년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1997년 2월 졸업, 1999년 사

법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군법무관으로 3년동안 근무 한 후 이번에 판사로 임명되었다.

문성운씨는 1993년 연세대 법학과에 입학하여 1998년 2월 졸업, 1999년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하여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군법무관으로 3년동안 근무한 후 평소부터 변호사에 뜻을 두고 있

나도 한마디

한국사회는 최근에 자살율이 OECD(세계 무역 촉진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회의와 의미를 상실함에 따라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의미 없이 한 순간에 버리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최근에 영화배우 이은주,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 유명 정치인 등 남부럽지 않은 재산과 명예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의 자살율이 증가하면서 일반 시민들도 자살에 대한 충동이 발생하여 자살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교에서는 자살은 육도윤회에서 아귀에 빠지는 원인이 라고 밝히고 있을 정도로 자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조상의 인연으로 이생에 태어나서 고통받고 번뇌하는 중생을 위해 할 일도 많지만, 과거부터 내려

온 업장을 소멸하지도 못한 채 제대로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인생의 연을 다하면 내생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업과 참 나를 아는 진리를 안다면 합부로 자살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사회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공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는 삶,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현실의 삶에 불만을 가지는 삶, 세상의 일은 모든 것이 인과와 법칙에 따라 자신이 지은 인에 의해 과를 받는다는 진리를 모른 채

선인을 짓지 않으면서 좋은 과만 바라는 로또복권 같은 삶, 이러한 삶속에 자신의 가치관을 상실하고, 지족하지 못하는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위대한 자살을 자행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불교의 참 진리를 안다면 자살은 막을 수가 있을 텐데...

(김진필/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불교의 진리를 알면 자살을 예방

신행체험 20

탐욕 버리고 마음 비우는 인과법



허태연(법정행) 보살
(성화사 신정회 회장)

제가 총지중과 인연을 맺게된 계기는 친구의 권유로 처음 성화사로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법이 뭔지도 모르고 친구따라 절에 왔다 갔다 하며 하루하루 다니다보니 어느덧 1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부처님의 법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보다 조금 나아진

해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가운데 번뇌와 고통, 업장이 소멸되어 바른 마음과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부처님과 스승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지중에 제도되어 지난 세월동안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기에 저를 제도시킨 친구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수행하면서 얻은 공덕은 특별히 남다른 것이 있는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 가족들간에 서로 화합하여 평화로운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공덕인 줄 알고 앞으로 열심히 정진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거의 매일 절에 다니다 보니 가족들의 불만도 많고 갈등이 많은 때가 많았습니다. 그

운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총지중의 수행법이 다른 종교보다 실천법을 강조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매달 월초불공을 하다 보니 일상생활하면서 불공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월초불공이 정해져 있기에 꼭 지켜야 하는 줄 알고 불공을 지키다 보니 현대의 삭막한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공허함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불공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다면 불공을 지키지 않았을 텐데 억지로라도 불공을 지키며 수행을 하다보니 자신의 내태함을 극복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시대는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고 주5일 근무로 가족들이 휴식을 찾아 도시를 떠나는 상황이고 자살일에는

가족과 함께 불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꼭 자성 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지금은 옛날과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옛날방식으로 살기는 조금 맞지 않은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 종단의 수행법에 변화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절에는 할머니나 어머니만 다니는 줄 알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남녀 할 것 없이 불법을 심어주어야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것인

데 자성학교가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자비한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 기심으로 가득차고 말만하고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부터 부처님의 마음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해보지만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모두 화합하여 불법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가족부터 제도하여 행복한 날이 많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교도 분들이 늘 건강하시고 변함없이 절에 다니면서 용맹정진해주시길 바라며 우리 총지중이 무궁하게 발전하기를 두손 모아 서원합니다.

“
가정의 평화와 화합이 부처님 공덕
자비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 돕는
실천행이 진정한 불자

것 같기도 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후 자신을 돌아보니 '조금만 더 열심히 생활했더라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줄 걸...' 하는 후회스러움만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들은 되돌릴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것이기에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는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생각처럼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절에 다니면서 가장 소중하고 고마운 점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칠 때마다 그때 그때 닦는 일을 지혜롭게 이겨내는 실천법을 존경하는 정사님과 전수님의 도움으로 잘 배우고, 이러한 정진의 실천법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부처님의 지

러나 지금은 남편을 비롯하여 가족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있어 가족들에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처음에는 매일 매일 절에 다녔지만 저의 탐욕이 너무 많고, 소원이 많아서 그런지 생각한 만큼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서 갈등도 많이 했습니다.

또한 마음을 가다듬어 조금이나마 업장을 소멸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정진을 해 보았지만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탐욕을 버리고, 내가 선업을 쌓으면 반드시 좋은 과를 받는다는 인과법을 일심으로 믿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업장을 소멸하는 쪽으로 불공을 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인욕하며 용맹정진을 하다보니 소원성취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인욕을 실천하고, 마음을 비



21C 建設文化의 創造



연흥종합건설의 전 직원은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통하여
고객 최우선과
고품질로 건전한 기업
이미지를 구현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술개발로 21C 건설문화를 선도하여
사회에 봉사하고자 합니다.

기업이념(企業理念)

신용을 아는 기업
책임을 아는 기업

인정 받는 기업
봉사를 아는 기업

고객 최우선과 고품질로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책임과 능력을 다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이 된다.

경영이념(經營理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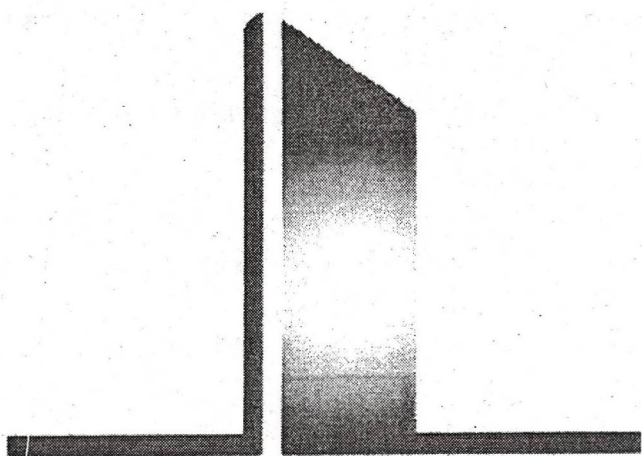
상호 존중 기술 혁신 고객 만족

인간의 창의적 능력을 상호 존중하고 기술혁신과
경영 합리화로 고객 만족과 가치창출을 최대화한다.

延興綜合建設(株)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7-8

TEL : 031)856-3301 FAX : 031)856-3303



YON HUNG

사원탐방은 교도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교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자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연들을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사연들이 다른 사원 교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 (02)552-1080 팩스: (02)552-1082

대자대비의 정이 넘쳐나는 자비도량

춘삼월의 우수와 경칩이 지났건만 새벽바람은 어느 겨울날씨처럼 매섭기만 하다. 부산역에 내리자마자 부산철의 바닷바람이 나그네를 반기며 맞아주듯 세차게 밀려오고 있다.
울 겨울이 떠나기가 못내 아쉬워 작별 인사를 하려는지 행인들의 웃음을 여리게 하지만 수행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밀려와 찬바람을 막아주며 힘주고 어려운 이 웃음에게 용기와 희망을 베풀어주는 자비의 도량 성화사를 찾아 가본다.

성화사의 연혁

성화사는 총기2년 부령동 4가에 건물을 임대하여 부랑선교부로 개설하고, 총기 4년에는 삼학사원당으로 개칭하였다. 총기5년, 6년에는 대신동으로 불단이설하고, 총기9년에는 보수동에 대지를 매입하여 성화사로 개칭하고 불단이설하였으며, 총기17년에는 구건물을 증축, 개축하여 이설불사를 한 후 밀법포교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성화사는 초대 원당정사님이 교화를 시작하여, 심모관전수, 정정심전수, 지역정사, 자심해전수, 송하정사, 주신재전수가 교화하였으며, 현재는 법공정사, 공덕성전수님께서 중생제도를 위해 용맹정진하시고 계신다.
법공정사, 공덕성전수님의 가르침을 들 어본다.

복(福)을 많이 지읍시다

세상 사람들이 복(福)에 대하여 말을 쉽게 들 하는데 자세히 보면 복이 좋은 것



인 줄은 알면서도 막상 그 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사람마다 복 받기를 바라고 복 많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복이 어떤 것이며, 어디서 오고 왜 없는지? 다복하고 박복한 그 근원에 대하여 무지할 정도로 잘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복 받기를 다 좋아하면서도 복 짓는 이는 드물고 죄 받기를 싫어하면서도 죄 짓는 이는 너무 많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복이란 형상이 없으면서도 그 작용과 쓰임새는 무궁무진하여 종류도 많고 어디에도 쓰이지 않는 데가 없고 그 이로움이 실로 말로 다 하기가 어렵다 하였습니다.
복의 근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복이 마치 재수 좋은 사람이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듯 길거리에서 돈지갑 줌, 복권 당첨되듯, 재수가 좋아 생기거나, 부처님이나 하느님이 떡 나눠주시듯, 나눠주어 받는 것쯤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복이란 결코 우연한 재수거나 그저 생

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자자자(自作自受)라 하였으니 반드시 내가 지어 내가 받는 것이지 결코 빌거나 빌리거나 훔치거나 빼앗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복은 자기가 지어 자기만이 받아 누리는 것으로 남이 훔쳐가거나 빼앗아 갈 수 없고 내가 쓰지 않는 한 결코 줄어 들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령 사람이 태어날 때 다 전생에 자기가 지은 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집에 태어나든지 자기 복으로 살게 됩니다.
복은 아껴써야 합니다. 아무리 다복하고 만족하더라도 함부로 남용하게 되면 쉽게 고갈되어 바닥이 나니, 적은 복이든 많은 복이든 항상 아껴쓰기를 유념해야 합니다. 복은 쓰되 자기만을 위해 쓰지 말고 널리 나눠 써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기심과 간탐심이 굳어져서 남과 나눠 쓰기를 싫어하고 남의 어떤 버릴 지언정 남주기를 싫어하니, 반드시 나눠 쓰기를 힘써야 합니다.
큰 복이 되는 곳을 찾아 지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지으면 한 사람에게 받



생각하기 쉬운데 복이란 인생만사 쓰이지 않는 데가 없고, 하지 못할 바가 없다 하겠습니까.
작게는 한낱 미물, 초목이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사람이 도를 이루고 성불하는 것도 지은 복이 없으면 안된다 하겠습니까. 이렇듯 복이란 지어만 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쓰이는 여의보주(如意寶珠)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튼 언제 어디서나 많이 짓고 불입입니다.

육바라밀 실천과 생활화

대승불교(大乘佛敎)의 수행요체(修行要諦)는 뉘니뉘니해도 역시 육바라밀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활불교(生活佛敎)를 표방(標榜)하는 우리 총지종의 수행요체 또한 소의경전의 하나인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에 의한 육바라밀 실천과 생활화에 있다 하겠습니까.
대승이취육바라밀경 권 제4에 <중생을 제도하고 육바라밀을 수행해야 무상보리를 증득함을 설함>에 그때에 박가법께서



자씨보살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은 마땅히 오취(五趣)의 중생을 인도하여 무상정등보리에 들리니라. 외도의 사된법과 악지식을 멀리하고 마땅히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를 친근하여 수행할 것이며 구족하게 대승을 수행하는 자를 반대로 삼고 자신에 있어서도 정법을 듣고 부지런히 이어 지닐지니라. 항상 이와 같이 여섯가지 바라밀다에 안주하여 정진수행하고 마음과 뜻을 항복 받아서 육근을 섭호(攝護)할 지니라. 이 세력으로 말미암아 속히 무상정등보리를 증득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라고 하느니라> 이상과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육바라밀을 수행해야 속히 무상보리를 증득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바라밀이란 다 아시하시피 '도피안(到彼岸)' 즉 저 언덕에 도달한다는 말로 고통의 '이 언덕'에서 열반의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저 언덕이란 만족과 안락이 보장된 우리 모든 중생들의 영원한 이상향인 것입니다.
열반을 자칭 '죽음' 또는 죽은 뒤에 가는 극락세계쯤으로만 생각하는 이도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열반의 뜻은 깊고 넓어서 언설로 간단히 설명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생전(生前)이나 사후(事後) 어느 한 쪽에만 국한 됴이 없이 넓고 깊은 뜻은 내

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가령-불만과 고통을 '이 언덕' 이라고 한다면 만족와 안락은 '저 언덕' 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사원을 '이 언덕' 이라면 '성취'는 저 언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총지종에서는 육바라밀을 교리적인 이론보다 실천행에 무게를 두어 주로 육행(六行) 또는 육행실천 등으로 즐겨 씁니다. 그 중에서도 보시바라밀이 으뜸입니다. <육행지중에 행단이 위수(六行之中 行檀爲首)>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바라밀중에 보시바라밀을 맨 먼저 행해야 할 순서로 보는 것입니다. 육바라밀이 처음 보시바라밀로부터 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 순으로 차례로 된 것도 깊은 뜻이 담겨진 순서라 하겠습니까.
우리 중생들이 중생의 탈을 벗지 못함도 따져보면 무시광검으로부터 지어모은 탐진저 삼독업 때문입니다.
삼독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중생탈도 벗지 못하는 것입니다. 삼독업 중에서도 탐업이 그 머리가 되는 것이니 먼저 탐심부터 소멸시켜야 함이 당연한 순서로 탐업을 녹이는 데는 보시행이 최상의 양



악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행에도 또 세 종류가 있으니 소위 재시(財施), 법시(法施), 무위시(無畏施)가 그것입니다. 이 삼종시를 또 행할 순서대로 말한다면 재시가 먼저입니다. 재물이란 인생살이에서 매우 소중한 것으로 재화를 우리몸에 비유한다면 피와 살과 같아서 부족하거나 없게되면 당사 생명유지가 어렵듯이 그래서 모두가 재물에 대한 욕심과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다생검으로 물질에 집착과 탐욕을 자꾸 쌓아서 탐업이 가장 무거운 중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탐심 때문에 온갖 죄업을 짓게 되고 또한 선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장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재물을 풀어 널리 보시행을 함으로써 속세의 탐업을 녹이고 아울러 큰 복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지종의 교도들은 입교와 동시에 먼저 쉽고 가까운 단시행(檀施)부터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저녁으로 밥을 지을 때 식구 수 만큼 쌀 한 술씩을 먼저 뜨는 절량 회사와 날마다 정시(定施)하는 법 등이 그것입니다.

인터뷰

성화사 법공 정사, 공덕성 전수



법공 정사



공덕성 전수

▶언제부터 총지종과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말씀해주시지요.
총지종이 창종되기 전 진각종에서 교도로 있다가 총지종이 창종되면서 총지종으로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기 원년부터 총지종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정사, 전수님께서 교화하고 계시면서 나름대로 교화방법 및 수행철학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지요.
특별한 교화방법은 없으며, 다만 우리 종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불교신도들이 부처님의 진실된 가르침은 외면한 채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이 많은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밀교의 수행은 정확한 의례와 작법, 비요성이 요구됨으로 교리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불교의 근본적인 이해와 정확한 교법 수행법을 중시해야하며, 종조님께서 교시하신 종지를 올바르게 전달하는데 주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승의 최우선 목적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에 남다른 방편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남다른 방편은 없으며, 종조님께서 교시하신 교법에 충실하는 것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즉 정확한 삼밀관행의 실수와 육행실천의 생활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가식적인 행위, 분별심, 시기와 질투로 얼룩지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불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시지요
중생은 정각을 이루기 전에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미망과 집착에 사로잡혀 사물을 분별하고 시비를 판단함으로써 끊임없이 충돌하고 갈등한다고 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탈피하고 인류의 큰 스승인 선각자들의 가르침을 법칙으로 삼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자들은 오직 부처님의 교법을 존중하여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시원에서 중생들을 교화하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화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지요
일반인이나 교도들은 물론이고 우리 밀교의 교법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어렵고 힘들며, 더욱이 일부 교도

님들이 열심히 불공정진하여 해탈과 성취를 목전에 두고 마지막 한 고비를 못 넘기고 퇴전하는 경우를 볼 때가 매우 안타깝고 스승으로서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일선사원에서 교화하시면서 보람된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도들이 열심히 불공정진하여 사원을 성취하고 고난에서 벗어나 기뻐할 때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살님들이 잘되고 기뻐하는 일이 곧 나의 일이고, 보살님들과 동고동락하며 살고 있으면서 오로지 보살님들의 사원성취만을 서원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공 정사님께서서는 통리원장 등 종단의 주요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종단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단 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가지 방법보다 한 가지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승자 모두가 뼈를 깎는 아픔과 자기희생을 전제 한 개혁의지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떤 방안도 무용지물입니다.
승자들은 특히 자기수행에 철저해야 합니다. 승자 스스로가 청정한 경지에 이를 때 보살님들은 스승님들을 존경하게 되고 종단은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사람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뛰어난 한 사람이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어렵고 힘든 중생들을 해탈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종단은 훌륭한 도제를 양성하는 일이 곧 종단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불사인 만큼 도제양성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총지종 교도 및 성화사 교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지요.
길(吉), 흉(凶), 화(禍), 복(福), 행(幸), 불행(不幸)이 모두 내가 지은 인과라 내 업(業)을 참회할지언정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탈되어야 내 가정이 해탈되고 내 가정이 해탈되어야 남도 화도(化度)할 수 있는 법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인연들이 무언중에도 화도(化度)되게 하는 진언행자가 됩시다.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1가 40-15
전화: 051)254-5134

